

보안과제(), 일반과제(o)

PJ00696020101131300

농업환경연구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신문화공간조성 전략개발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 완결과제 최종보고서 >

제 출 문

농촌진흥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신문화공간조성 전략개발 연구”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1세부연구과제 :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사례 연구

제2세부연구과제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제3세부연구과제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 개발

2010. 12.

주관연구기관명 :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연구책임자 : 박 덕 병

연 구 원 : 조 록 환

연 구 원 : 손 은 호

요 약 문

I. 제 목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신문화공간조성 전략개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 분석, 셋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우선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는 2009년에 음성짚풀공예마을, 양평구둔영화마을,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원주모두골농촌극장, 음성황토명상마을, 예천삼강주막, 장수하늘소마을, 정선아리랑문화활동, 파주혜이리마을, 서울성미산마을, 산청민들레생태마을, 진안예코뮤지엄 등 국내 13개 사례와 일본 와리비노 계단논마을, 시바손마을, 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카시마 전통건물보전, 영국 콘월식물원마을 등 해외 5개 사례를 통한 신문화공간 유사 우수사례를 조사하였으며, 2010년에 장수하늘소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등 국내 3개 사례와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영국 다운엠프니마을, 프랑스 디낭권역, 스페인 Jerta Valley 개발권역, 독일 Altusried마을 등 해외 5개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총 26개 지역 사례의 특징과 당면과제, 성공요인 등을 심층면접조사와 2차 자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횡성, 옥천, 서산, 완주, 서귀포, 의성 등 6개 신문화공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참여정도, 계획수립, 사업추진방향, 추진체계, 사후관리,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차이, 마을 비즈니스사업 선호정도, 사업효과 영향요인,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주민들의 갈등원인,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지역별 갈등수준 인식 차이 등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개발하였고,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운영매뉴얼(지침)을 개발하였다. 신문화공간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면접결과와

사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과평가지표는 전문가회의와 검토, 가중치분석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IV. 연구개발결과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 26개 지역을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시장지향과 주민공동체지향으로 구분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 유사사업 성공사례 특성을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Agency)가 설립되어 마을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스페인, 독일, 프랑스 사례, 서귀포 가시리 개발사례)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주민주도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비즈니스 호텔)(영국, 스페인, 스위스). 또한 정부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모금된 자체 사업비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다(영국).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일본 시바손, 영국 콘월 등)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이 충분히 장기적이었다(일본 10년간 지속, 영국 8년).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며(일본), 마을고유의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원주모두골, 부산맛추픽추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주민의 참여(서울성미산, 산청민들레, 양평구둔영화마을), 귀농, 귀촌인들(산청민들레,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이 전통문화보존지구로 설정되면 비록 오래되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도 전통건물보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하고 있었으며(일본, 스위스, 스페인),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있었다(일본, 영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마을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1차 56.8%에서 2차 65.8%로 증가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견 수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차 조사 71.7%에서 2차 조사 93.2%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기간, 연간 가구소득, 자가소유면적, 벼농사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종사기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 부정적환경/경제요인(-) 순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효과 인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갈등원인은 주민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며,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며, 주민들 간의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충돌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평가지표는 2영역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과정’ 영역에서는 평가항목이 사업비 집행정도, 자부담사업비 투입액, 토지/시설물 등기, 사업법인의 정관/협약서, 마을주민 조직 수, 워크숍지자체의 의지, 전문가 컨설팅 참여형태 등이며, ‘사업추진성과’ 영역에서는 기본계획대비 달성도, 주민요구 계획 반영, 사업 파생소득 가능성, 사업운영 고용인력, 홍보실적, 문화활동 개최횟수, 지속적 유지/관리, 사업자율운영 능력 확보, 지역주민 만족도 등이다. 신문화공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지침(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과제 수행중에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효과적인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성공요인을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요인 제안’으로 정책 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문화 및 여가시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지역주민의 주민갈등관리 및 주민지지 유도로 효과적인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서 주민지지 유도 및 갈등관리방안’을 정책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관리 및 주민지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화공간추진전략과 사업성과 평가지표개발은 정책추진을 하는 농식품부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S U M M A R 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local cultural heritage in rural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s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successful villages for the developing rural cultural space (DRCS). In-depth interview method and secondary data were used to analyze 26 successful cases. We classified the villages by market-oriented or resident participation also government-sponsored or privately led. The result show that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s a main element of success. Local commitment among residents based on culture and common identity, regardless of economic or political conditions, serves as a valuable tool in shaping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options and local actions. Local culture provides a sense of identity for rural communities and residents.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community residents' seek for their benefit and demand for rural tourism development i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munity residents' demand for project of creating rural cultural space so a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ommunity residents' needs. On-site survey was conducted for residents in the area with 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s. A survey was obtained from 438 community residents through primary survey, and 366 through secondary survey in the study area. A factor-clustering method identified two distinct segments: negative perceived impact group(48.6%), positive perceived impact group(51.4%). The estimation of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residents who is most likely to opt for each type of perceived impact group.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positive perceived impact were length of residence, annual income, owned area, rice farming, period of farm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indicator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DRCS. In order to develop such objective indicators, this study employed a Delphi-AHP technique. The panel members reached consensus on the following set of 16 indicators and was conducted with AHP method from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project process (7) and project output (9). The study also suggested the manual and three strategies to implement the DRCS effectively.

<세부과제1: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제 1 장 서 론

농촌관광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농촌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Cloke, 1993; Getz and Page, 1997). 그러나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Alexander & McKenna, 1998; Nilsson, 1999; Jenkins, Hall, & Troughton, 1998; Sharpley, 2002). 특히 Sharpley(2002), Hjalager(1996)과 Opperman(1997)에 의하면, 농촌관광개발은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긍정적인 손익분기가 불확실하여 농촌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Fleischer & Felsenstein, 2000). 특히 관광개발로 인하여 지역문화가 파괴되고, 문화적 전통이 희생되거나 획일화된 대중소비패턴으로 대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Hjalager, 2004).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이 주도하여 농촌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나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어촌 지역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지역주민간·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영향과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는 구조를 제공한다(Brennan, Flint, & Luloff, 2009).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설정과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 차원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프랑스는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클레르보의 카페(Le Cafe de Clairvaux)의 경우 마을입구의 창고와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상태였고, 1982년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하는 곳에서 매입하였다. 지방특유의 돌인 붉은 사암으로 건축되어 지방특색이 잘 반영되어 있고, 인근의 마을성당도 같은 재료로 건축하였다. 경제적 이유와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소의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임대주택 형식의 건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브랜느의 가내수공업회사(Maison des entreprises du PNR de la Brenne)의 경우 창고를

가내수공업 공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창고용 건물로 지역 고유의 재료인 빨간 돌로 지어져 지역 건축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존의 시설을 유지시키면서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원, 학교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지역문화유산이 담겨있는 소재들을 발굴해 녹색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브렌즈 중심에 있는 농가와 부속건물들을 개조, 지방문화를 소개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지방의회에서는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창고용 건물들을 매입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사무실용 건물로 보수공사,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판매시설, 간이음식점, 가내수공업 공장용 건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생 일리에르 수 샤를리유의 '한 지붕'(Le grand couvert de Saint-Hilaire-Sous-Charlieu)의 경우 수도원의 창고를 문화행사의 장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생 일리에르 수 샤를리유의 '한지붕'은 이 지방의 전통적인 농경생활과 일상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지붕을 가진 건축물로 과거 수도원의 창고로 쓰이다가 여러 부속사와 합쳐지면서 농부들의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농기구 소리, 전통음악·방언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으며, 당시 생활모습 등을 모형으로 재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 이야기 동산, 콘서트, 지방토산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빨로 델 비드르(Palau Del Vidre)의 유리공예 전시장의 경우 포도주 창고를 유리공예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빨로 델 비드로는 오래 전부터 유리공예가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유리공예가인 F. Brillard가 마을중심에 있는 버려진 포도주 창고를 유리공예 작업실, 전시실, 판매장으로 개조하였다. 유리공예 작업실, 전시실,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포도주 창고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유산적 가치는 이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까니 바르빌(Cany-Barville)의 도서관과 문화센터는 버려진 농가와 부속사 등을 마을내 문화시설 등으로 개조하였다. 인구 3,400명이 살고 있는 까르빌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정착해 사는 곳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리모델링에 사용된 건축물은 17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로 당시 건축적인 특성과 지방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어, 원형의 상태대로 복원하여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농촌활성화 전략은 단순한 농작물 거래 및 체험을 넘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과 지역(전통)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류정아, 2010). 국내의 전국에 있는 공동시설 현황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농기계창고, 농산물보관창고 순으로 마을 공동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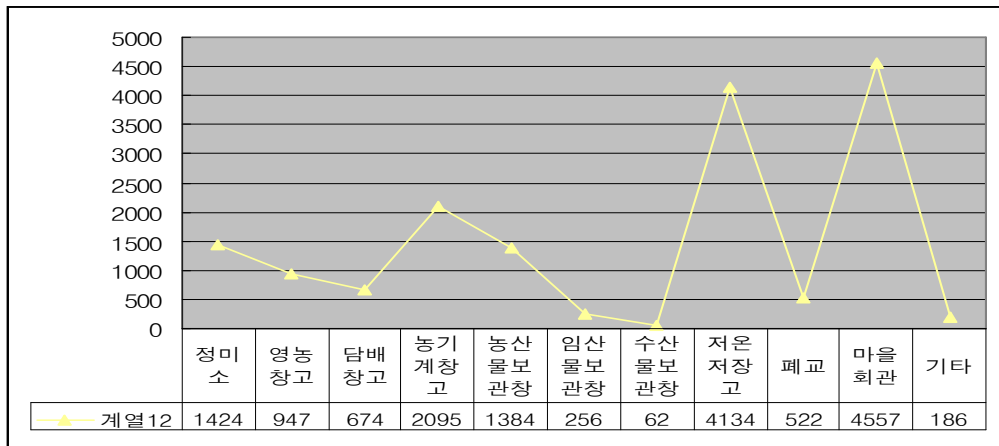


그림 1. 전국의 농촌 공동시설 현황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에서는 정미소를 박물관으로 개조하였다. 기록사진, 영상물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주체의식을 고취하고 도시민에게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실은 정미기계 시설, 2실은 사진 갤러리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지리산 바이오랜드는 구례군 1백여 농가가 모여 만든 군단위의 농촌관광협의체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유·무형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민박, 호텔, 농장, 향토음식점, 지역특산물업체 등이 조직되어 농사·문화체험, 레포츠, 문화유산 답사, 농산물판매, 숙박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홈쇼핑몰 ‘구례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프에도 가입(년간 방문객 1만 여명)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은 평창군내 체험마을협의회, 해피스테이협의회, 레포츠협의회, 평창그린투어센터 등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농박브랜드화, 평창GT운영, 레포츠콘텐츠개발, 브랜드 마일리지 구축 및 상품권 발행, 실시간 예약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리산 칠선계곡의 경우 '두지터'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5가구 10명)가 거주하는 곳에 이주한 다구 (茶具)제작자인 문상희씨가 담배건조장을 찾집으로 개조하였다. 흙으로 지은 담배막에 '흙내'라는 나무간판을 걸고 약초차(茶) 연구에 몰두, 인터넷을 통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의 경우 농협창고를 개조하여 광대패 '모두골'에서 영화상영, 축제준비공연, 문화예술학교, 체험학교 등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부예술단 '모악', 청소년예술단에서 활용하는 등 지역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의 백운에코뮤지엄 답사코스의 경우 광역범위의 공간에 조성되어진 '지붕 없는 농촌 전원 박물관' 구상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하드웨어 시설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자원 찾기'에서 출발하여 개별공간과 사람, 무형자산 등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육성에 기본 중심을 두고 접근하였다. 5개 코스로 구성된 답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전거, 문화관광, 공공미술, 구름땅 달빛걷기, 흰구름 지도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곽수정(2007)은 해외의 12개의 성공적인 문화공간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공간은 놀이성, 교육성, 정체성, 장소성, 예술성, 환경성, 창의성으로 분류하여 놀이성과 교육성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박상희(2008)는 경관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해석방법과 물리적인 요소간의 상관성으로 현재의 경관이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문화공간의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제1요인은 심미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는 2009년 5월 2일 부터 10월 10일까지 음성짚풀공예마을, 양평구둔영화마을,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원주모두곶농촌극장, 음성황토명상마을, 예천삼강주막, 장수하늘소마을, 정선아리랑문화활동, 파주헤이리마을, 서울성미산마을, 산청민들레생태마을, 진안에코뮤지엄 등 국내 13개 사례와 일본 와리비노 계단논마을, 시바손마을, 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카시마 전통건물보전, 영국 콘월식물원마을 등 해외 5개 사례를 통한 신문화공간 유사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2010년 4월 9일부터 10월 15일 장수하늘소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등 국내 3개 사례와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영국 다운엠프니마을, 프랑스 디낭권역, 스페인Jerta Valley 개발권역, 독일 Altusried마을 등 해외 5개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총 26개 지역의 사례를 조사 완료하였다.

2절 연구내용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을 설정하며,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를 위해 국내 15마을, 해외 11마을 사례의 특징과 당면과제, 성공요인 등을 심층면접조사와 2차자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3절 연구결과

1.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설정

지역문화는 지역공동체나 주민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Brennan, Flint, & Luloff, 2008; Ray, 1998). 이러한 정체성은 전통과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제공한다.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헌신은 효과적인 지역개발 껍리를 찾아서는 실행을 하게 하는 가치 있는 수단이 된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성을 추구하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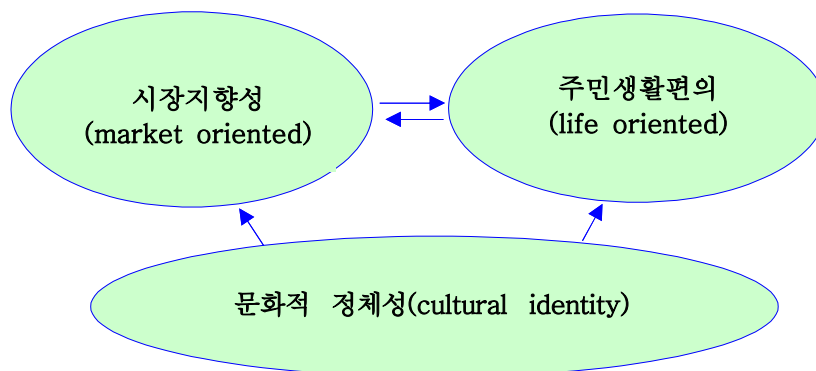


그림 2.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방향

농촌개발에 대한 담론은 크게 농업·농촌중심적인 담론, 오락주의적 담론, 실용주의적 담론, 지역사회의 지속성에 관한 담론, 자연자원보호 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업·농촌 중심적인 담론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에 관한 담론의 내용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용주의적인 담론은 경제적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내생적발전과 외생적발전의 프레임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델로서 농촌개발에 관한 농업·농촌중심적인 담론, 실용주의적 담론, 지역사회의 지속성에 관한 담론을 모두 갖고 있다. 농촌개발의 핵심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이것과 연관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촌개발은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고, 그들 사회와 문화를 다시 재설정 하는 것이다(van der Ploeg et al. 2000).

<표 1> 농촌개발 담론 분류

구분		과정(개발에 대한 동기의 기원)				
		내생적 발전		외생적 발전		
				시장		정부
내용	경제적	①농업·농촌 중심적인 담론		②오락주의적 담론	③실용주의적 담론	④지역사회의 지속성에 관한 담론
	사회적					
	생태적		⑤자연자원 보호 담론			

2. 국내외 성공사례

(1) 파주 헤이리 마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담론과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이룬 공동체 마을로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이다. 1997년 발족하여 15만평에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 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짓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마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원수는 443명이다. 창작 및 주거용이 82동, 갤러리 68동, 식음료 33동, 판매 22동, 공연 4동, 영화 3동, 더 스텝 3동, 워크샵 3동, 커뮤니티센터 1동으로 총 218개의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만든 자발적 공동체라는 것이며, 둘째,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미래의 헤이리마을은 다양성과 창조성이 결합된 거대한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 셋째, 문화예술품을 생산만 하는 공간이 아닌 헤이리가 허브가 되어 자체 생산작품과 주변의 생산작품이 함께 유통하는 공간이라는 것, 넷째, 문화마인드가 있는 저명인사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점, 다섯째, 투명한 운영이었다.

(2) 원주 모두골 농촌극장

‘광대패 모두골’은 2002년 손곡리 마을에 이주해 온 예술 단체로 2002년 부론면 손곡리로

이주해 영산부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품물반을 개설하고 풍불패 예술극장을 시작하였다. 손곡리에서는 매년 대보름과 여름, 가을에 개최되는 손모내기 축제, 메뚜기잡기 축제, 남한강 풍류 난장굿, 솟을거리 축제, 손곡예술캠프, 손곡예술아카데미 정기교육, 생태문화예술 체험학교 등을 통하여 2,0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하였다. 비료 창고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예술공연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마을축제를 진행하여 마을 문화예술 교육과 방문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2주, 4주 토요일마다 공연행사를 개최하여 1,000여명의 도시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손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예술활동가들의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농촌마을개발사업과 예술단체가 결합함으로써 농촌공간에 문화적 감수성을 살릴 수 있었으며, 예술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 둘째, 부녀회의 활동을 통하여 예술인의 활동이 소득사업과 연계, 직거래 등 농산물 판매와 연계된 예술활동이었다는 것, 셋째,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3) 음성군 짚풀공예 마을

음성군 생극면 차평1리 수리뜰 마을 10여명이 짚풀공예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전통민속의 맥을 잇고 있다. 2005년에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이 마을은 수리뜰 짚풀공예전시관을 조성해 마을주민들이 작업장과 짚풀공예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층 전시관에는 짚풀공예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우상옹의 둥구미세트 출품작품을 비롯해 마을주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옛 생활용품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농촌체험관광과 연계시켜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마을의 자랑거리인 짚풀공예를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고자 한다. 성공요인은 첫째,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짚풀공예기술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중심이라는 것이며, 둘째, 마을에 손재주를 가진 짚풀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점, 셋째, 마을주민들의 풍부한 인심과 화합이다.

(4) 산청 민들레마을

1991년 시작되어 민들레마을 공동체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선교와 농촌봉사를 하던 기독교공동체로 빈농가를 빌려 몇몇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다. 농촌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활동으로 민들레학교(9명), 대안기술센터(총4명), 민들레 아트센터(총1명), 농장(총2명) 등이 있으며, 국외활동으로 캄보디아 이웃(NGO), 인도 나가랜드 CRBC(Council of Rengma Baptist Churches) 등이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신앙 공동체로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신앙적으로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영국에 유학을 하여 새로운 생태기술을 학습하고 이것을 마을에 전파하여, 농촌에서의 종교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셋째, 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헌신과 열정, 구성원들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서울 성미산마을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주민공동체로 2001년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계기로 이름 붙여졌다. 활동의 주체는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1994년 이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이루어져, 성미산지킴이 운동도 그 연장선에서 가능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 FM(소출력공동체라디오), 되살림가게(재사용 순환), 한땀두레(바느질 작업장), 작은나무(마을 카페), 마포연대(풀뿌리 시민단체), (사)사람과마을(마을만들기 단체),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자활센터,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등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회원은 생협에 참여하는 회원(어른기준)은 3000명 정도이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은 1,000명(어른기준) 수준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커뮤니티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성미산 마을소식’을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이다.

(6) 진안 에코뮤지엄

2007년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지역 통째로 박물관(에코 뮤지엄)’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에코뮤지엄’은 제한된 공간에 전시하는 박물관과 달리 개방적인 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태문화박물관으로 설정하고, 홍보-관리-운동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지역문화사업이다. 간판 개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데미샘 에코뮤지엄,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마을지도 그리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성공요인은 첫째,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에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시로 선도적인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는 것이며, 둘째, 지역사회와의 소통, 셋째,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를 슬기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며, 넷째, 민-관-학의 삼자협력체계이다.

(7) 음성 황토명상마을

총 19가구가 거주하던 마을이었는데, 2006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명상 명상동호회 ‘나를 찾는 사람들’ 회원이 명상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 마을을 찾으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에 접어들면서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자 본격적으로 명상 마을 부지를 매입, 대규모 황토 명상 마을을 조성하였다. 1700평에 30가구의 집을 짓고 있으며 마을에 상주하는 사람은 10가구이다. 황토 명상 마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말 농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주말 농장은 마땅한 숙식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황토 명상 마을은 이런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입주 자격으로는 명상을 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흙집짓기학교, 명상센터, 대안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웰빙에 대해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황토 명상 마을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둘째, 명상공동체의 정신적 연대, 셋째, 삶과 명상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8) 예천 삼강주막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낙동강 주변 어메니티(지역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강(三江)이 만나는 이곳을 중심으로 나루터 및 주막촌 복원과 회룡포 자연경관체험마을,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 등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5개 시(봉화, 안동, 의성, 예천, 문경,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고령)와 5개 군(영주, 김천, 군위, 청송, 영양)이 2조 63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민자 20%) 규모로 생태 및 환경 자원 활용, 역사 및 문화 자원 활용, 관광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향토자원(주

막집)을 보존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정부의 지원,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도자리더십이다.

(9) 양평 구둔 영화마을

구둔 영화마을은 친환경농업과 문화예술체험이 결합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구둔 영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농한기와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기초영화교육, 촬영실습, 감독과 연기지도, 편집과 시사회까지 개최한다. 도시와 농촌이 만나고 어린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218명의 마을주민 모두가 옛장수, 역무원, 농부로 분장하고 주인공과 연예인이 되어 창작영화까지 만들고 있다. 영화체험축제를 통해 방문객에게 영화만들기, 농산물판매, 70-70년대 시대체험(지게지기, 초가집, 우물, 옛장수, 놀이가구, 학교)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만들기 축제는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 편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노인분들은 다들 영화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편이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젊은층이 필요하다. 성공요인은 첫째, 마을 주민들은 소득 보다는 좋아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장기적으로 마을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으면 소득과 연계가 되겠지만, 당장에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 사업에 주민들이 농촌마을에서 주민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좋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영화에 대한 호기심, 넷째, 영화제작이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마을주민들이 운영팀을 인정하고 따라주었다는 것이다.

(10) 정선 아리랑 문화활동 사례

정선 아리랑 문화활동은 민간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활동을 정선군청이 지역개발을 위한 아이টে으로 설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이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선아리랑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선아리랑 LP음반과 아리랑 가사집을 제작했으며, 정선아리랑비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까지 34회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였으며, 당면과제는 전시공연센터 건립과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며, 둘째,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셋째, 군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은 정선 군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어 특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정선아리랑 그 자체를 즐긴 결과라는 것이다.

(11) 임실 치즈마을

임실 치즈마을은 86가구에 23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2003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어 농촌관광마을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7년 예가원 공동체를 시작으로 2000년에 주식회사인 '숯골유가공' 회사가 설립, 2002년 영농조합법인이 '이플' 유가공회사가 설립하였으며, 체험사업으로는 치즈체험, 경운기체험, 치즈돈까스, 초지낙농체험, 방앗간교육체험, 산양체험, 비누체험, 농사체험, 맛체험 등을 하고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현재 마을주민 230명 중 63명이 회원, 마을운영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사업의 운영주체이다. 2008년 방문객 3만 2천명, 6억 8천만원 매출을 올렸으며, 수입금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인 경우 5%, 마을공동사업장을 활용한 개별사업의 경우 10%를 마을운영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다. 당면과제는 임실 치즈벨리사업이 추진되어 브랜드관리가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오랫동안 마을공동체 문화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마을 리더십이며, 둘째, 일명 ‘꿈의 프로젝트’라는 농촌마을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12) 단양 한드미마을

43가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농촌마을로서 농촌마을 공동체 비즈니스(communit business)로서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구성하여 농촌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2만 9천명, 견학 및 벤치마킹 25%, 당일 체험·방문객이 50%, 숙박형 체험·방문객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관광사업을 통해 2006년 체험, 숙박, 농산물 판매를 통해 2억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8년 연간매출액은 4억 2천만원 정도이고, 이 중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1억 4천만원의 연간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드미마을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한드미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장류가공사업 및 특산물 개발사업, 공동민박,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 당면과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약선식당과 한방건강관리실을 개발하는 것이고, 한드미권역 5개리 개발사업과의 조화와 협력이며, 한드미 권역 주민을 위한 양로원, 한의원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것과 부족한 숙박·체험 시설의 증설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사업 운영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제시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투명한 이익분배를 하였다는 것이며, 넷째, 마을 돌담길 복원, 마을 안길, 전통주택 리모델링, 빨래터 복원, 물레방앗간, 농가 리모델링, 소규모 부대시설 문화경관 재료로 활용하는 농촌전통문화 및 경관의 보전, 다섯째, 한드미마을 및 한드미권역 주민자치규약 제정의 마을 운영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방식의 선진화이다.

(13) 장수 하늘소마을 사례(정부주도 사례)

2003~2005년 장수군에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장수군 순환농업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24농가가 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24농가)하고 있으며, 경작면적은 총 18,000평(군유지 3,345평, 마을주민임대 14,820평), 주요농산물은 토마토, 쌈채류, 오미자, 유정란 등 50개 이상을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고 있다. 도시소비자 조직활동으로 농산물판매(전주 한울생협, 주민생협 등)를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회원제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회원수는 약 500명 정도이며, 연총매출액은 385백만원, 연회비 25천만원, 추가구매액 75백만원, 쇼핑물판매 15백만원, 가공품판매 25백만원, 체험행사 2천만원 정도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귀농인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는 점과 둘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공동체 이루고 있다는 점, 셋째, 친환경농업 중심의 대안적인 농업활동으로 도농직거래를 활성화하였다는 것이다.

(14) 통영 동피랑마을 사례 (민간주도 사례)

동포루 복원으로 마을철거계획(2007년)으로 시민단체주도 ‘푸른통영21’이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 개최하였다. 전국 미술대학 재학생 및 개인 18개 팀 참가하여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며 마을꼭대기 3채만 헐고 철거방침을 철회하게 되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시민단체가 주도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전통적인 마을모습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15) 부산 감천동 마추픽추마을 사례 (민간과 정부가 공동 주도)

1950년 한국전쟁시 전국에서 모여든 이주민 마을로 2-3층짜리 슬라브집이 대부분이다. 1990년부터 3만 명이던 주민이 1/3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 미술인 단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시작되었다.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 추진으로 보존과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부산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명소로 발전한 사례이다.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주민대표 5명,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작가 3명, 사하구 문화예술인 대표 2명, 구청 공무원 1명). 성공요인은 첫째,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예술인 주도, 둘째,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셋째, 전통적인 마을모습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16) 일본 미야자키 시바손 전통마을

미야자키현의 산간 오지 지역으로 13세대 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년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외부는 전통건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가능하다. 정부지원은 80%는 정부지원(50%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20%는 개인부담이며, 마을주민은 노령화되어 평균연령이 60세이다. 당면과제는 주민들은 현대식 건물을 원하고 있는데, 전통건물을 복원하는 정책과 상충되고 있다는 것으로,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1930년대에는 갈대로 만든 초가집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와집으로 복원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관광을 먼저 하지 않고, 전통적인 건축물부터 복원하고 있다는 점으로 관광사업을 먼저하면 전통적인 것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1930년대에는 갈대로 만든 초가집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와집으로 복원하고 있다. 셋째, 빈집이 생기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17) 일본 와라비노 계단논(스에이시 츠카사)

와라비노시는 사가현 북서부에 위치하여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중앙으로 송포천과 엄목천이 합류하여 가라즈만으로 흐르며 총면적 65.08km²중 15.7%가 농경지이고 64.8%가 산림으로 구성된 중산간지 농촌이다. 와라비노 다락논 농지는 표고 105-420m 급경사 지대를 1925년도에 개간하여 돌축대를 쌓아 만든 다락논이 1050개로서 면적은 약 45ha에 이르며, 당면과제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다락논 붕괴문제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다락논 보존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며, 둘째, 다락논 보존에 지역주민의 의지와 주민참여이다. 셋째, 쌀 재배에 사용하는 청결한 관개용수(안전성 확보)이며, 넷째, 신품종(유메시즈구) 개발로 품질 향상과 생산자 직거래망 구축이다. 다섯째, 다락논의 수려한 자연경관 이미지화 성공(국가 중요경관 선정)이며, 여섯째, 다락논 후농대의 성공적 지원(사가대학 등)이다.

(18) 일본 우레시노 시오다 전통건물보존지구(야마쿠치 사유리)

우레시노 시오다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약12.8ha)는 2005년 12월 27일에 국가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다. 전통 가옥의 보존수리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1건의 수리를 완료. 에도, 메이지, 다이쇼, 쇼와초기까지 여러시대에 걸쳐 건축되어, 몇 번의 수해와 풍설을 견뎌낸 居蔵造(전통농가 건축)의 상가와 土蔵(에도시대의 내화 건축물), 서양건축, 사찰 등 시오다 거리의 재산이 전문가의 정성과 기술에 의해 복원되고 있다. 당면과제는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활용이 잘 안되어(한집만 주 3일 동안 식당으로 활

용), 갤러리, 레스토랑, 주택 등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성공요인은 첫째, 국가로부터 전통보존지구로 선정 받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로 적극적인 참여 확산, 둘째, 노후되고 폐허화 된 건물이 복원됨으로 인한 거리 미화이다.

(19) 일본 카시마 전통건물보존지구(노리타케 무사집 복원)

카시마는 450년전 노부나가시대의 이루어진 역사적인 마을로 사가영주였던 나베시마가문의 성이었으며 서양문물이 초기에 전래되어 천주교가 들어와 스페인 도미니크 수도회의 본거지가 되었다. 카시마 시내의 전통건물 보존지구내 복원 대상 건물은 230건 정도가 있으며 노리타 주택 인근에만도 28건이 있다. 당면과제는 복원할 건축물이 밀집되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시에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사가대학 미시마 교수 조감도를 보고 주민들이 호응하였으며(1998-2000년), 국가에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이다. 둘째, 보존지구 반대자에게 모델 샘플을 제시하고 설득하였으며, 셋째, 미네마츠 소지로 씨와 같은 헌신적인 활동가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20) 취리히웨스트마을 사례 (정부주도)

칙칙한 공장지대가 공연장, 공예공방, 사진 스튜디오, 디자인 사무실 활용하여 문화와 유행의 거리로 탈바꿈하였다. 1960년대까지 스위스 공업번영지역이었으나 80년대 슬럼가로 변화하여 2000년대 이후 산업시설과 문화가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여 취리히 명소가 되었다. 성공요인은 첫째, 정부와 지역주민 거버넌스 체계, 둘째,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유지하였으며, 셋째, 지자체의 의지였다.

(21) 독일 알고이지방 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 사례

인구 5,000명(1800가구)에 농가는 8%로 1948년 야외공연을 시작하였다. 야외공연장 준공 후 연간 관객수 9만명(독일전역에서 찾아옴)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배우의 수가 많고 자연적인 야외무대를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다른 직종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사를 하는 배우는 50명 정도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960년대 천막을 치고 공연하던 것을 EU의 농촌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야외공연장 건립하였으며, 연극에 마을주민 조직인 사격협회, 축구회, 승마동호회, 합창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어메니티 자원보전 혜택을 주민에게 환원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자긍심 고취, 셋째, 지역주민과 정부기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넷째,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개발사업 연계이다.

(22) 프랑스 브레타뉴지방, 디낭(Dinan) 권역 농촌관광개발

29개의 마을공동체(기초지자체)가 결합하여 디낭개발권역을 구성하였다. 디낭지역 인구 약 1만명, 마을전체에 민박농가 150호로 20년 전부터 농외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가민박 시작하였다. 평균적으로 방 4개 침대 8개(등급 보리이삭 3-4개)로 농가당 연간 관광객수 300명(방문객당 평균체류기간 1주일)이다. 디낭 개발권역에 7년간 약 25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투입하였다. 100여개의 지역내 조직체가 지역개발기구(Pays du Dinan)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가민박 영업기간은 4월초-9월말이다. 정부지원은 10년 상환의 융자지원, 민박시설 보수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원의 절반이 농가민박(사례: 축산 1만6천유로, 농가민박 1

만6천유로)을 통해 얻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역사문화유적 등 마을 특징의 상징화(고성, 고가)의 보전과 숙박시설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개발기구조직(Pays du Dinan)과 100여개의 지역내 조직이 참여하였다는 점, 셋째, 지역고유 특산물을 이용한 식단 개발과 보급, 넷째,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농촌 건축물의 숙박시설화이다.

(23) 일본 교토부, 미야마초 가야부키노(역새폴초가집) 마을

마을 48호중 농가 12호, 농가민숙 14호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는 특산품판매, 수수공장, 체험민숙,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야부키노 사토(유한회사)와 기타무라 가야부키노 사토(기타무라 역새폴 초가집 마을 보존회)가 결합하여 새로운 농촌사회 공동체 모델 제시하였다. 가장 중시하는 사업은 농산물가공판매, 찻집과 레스토랑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산물 판매(연간방문객 25만명)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마을 전가구 출자와 전체주민 경영참여(유한회사조직)이며, 둘째, 신토불이 농산물과 연계한 유기물 자원의 순환형 지역만들기이다.

(24) 스페인 엑스트라마두라, Jerta Valley 개발권역 사례

거주인구는 약 11,500명, 11개의 기초지자체(마을)로 구성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50% 이상이 농업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발 200-1,200m까지 계단식 체리밭이 조성되어 있다. 농가당 1.6-5.0ha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작목으로는 체리, 올리브, 호두, 딸기, 돼지, 향토산업인 체리를 생산, 가공하고 있다. 지역특산물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지역개발 목표로 두고 있으며, 17개의 협동조합이 결합하여 에이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산악지역이라는 지역의 악조건을 유리한 이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역자원과 전통건물을 보전하였다는 점, 셋째, 개발권역의 광역화(인구 1만1천명, 사업권역 면적 375km²), 넷째, 거브넨스 체계구축을 위한 개발위원회 구성(각 조직체 대표 11명이 의사결정기구 구성), 다섯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조직체: EU의 Local Action Group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25) 영국 콘월주 에덴 프로젝트

영국 가난한 농촌지역인 콘월지역의 소득은 영국 평균의 75%에 못 미친다. 한때 번성했던 구리, 주석, 고령토 광산은 대부분 폐허로 남았으며, 해안 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관광산업이 성장세에 있다. 1억 4000만 파운드(2800억원)가 투입된 초대형 식물원인 에덴 프로젝트는 2001년 정식으로 개장하였으며, 밀레니엄 재단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민간 용자를 끌어들여 1997년에 설립한 에덴 신탁(Eden Trust)의 사업이 열매를 맺었다. 2008년 유로 관광객수가 103만명으로 영국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England)에서 가장 우수한 50대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영국정부에서 시작한 ‘밀레니엄 프로젝트’ 32가지 중 외부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운영되는 곳은 에덴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전체 비용(연 2200백만파운드, 약 440억원)의 68%를 관람객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양한 사업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설립 때 빌렸던 민간차입금 2000만파운드(400억원)도 모두 갚았다.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9억파운드(1조 8000억원)이다. 에덴 프로젝트는 재미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색의 공간이다. 높이 55m의 거대한 온실 안팎에서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지는데, 사과로 사이다도 만들고, 미니 밴드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식당에서는 생선과 채소의 생산자 이름이 적힌 로컬푸드 메뉴를 즐기며, 기념품 가게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 지역민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되,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로컬 푸드를 선도하면서 지구인을 하나로 묶는 다양한 교육, 자선 및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면과제는 첫째,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기업과 지역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 환경분야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에덴 프로젝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럼 운영을 통해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보호에 글로벌 대기업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성공요인은 첫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지역주민이 행복해하는 사업을 수행), 둘째, 시작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여 방문객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식물과 농작물 재배와 유기농 농산품 생산, 넷째,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오랜 고민과 일관된 사업추진, 다섯째, 가치(환경)와 영리(지역관광)를 동시에 추구, 여섯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면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26) 영국(England) 스윈돈 다운 엠프니(Swindon Down Ampney) 전통마을 사례

약 200가구 거주하는 마을로 10년 전에는 19농가였지만, 현재는 2농가이다. 16년 전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마을 전체를 전통과 역사, 주거, 공동생활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맞도록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하여 정비하였다. 옛 교회를 복원, 정비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영국 '전통보존마을'(Best Kept Village) 수상을 하였다. 지주가 협동조합에 모든 농지를 팔고 이주하였으며, 농토는 농사를 지을 농민이 임대를 받아 경작하고 있다. 16년 전에 주택신축에 대하여 주민이 마을협정을 수립하였는데,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마을협정에 따라 주택의 건축양식, 재료, 모양, 색채 등을 고려하여 마을 발전계획과 경관계획에 벗어난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을계획은 5년마다 다시 재수립되는데, 마을계획과 협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게 되고 도로, 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등이 조성되었다. 지자체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기존의 오래된 건축물 비슷한 건축양식, 재료, 모양, 색채로 조성함으로써 외관상 구분이 되지 않고 잘 어울리게 조성하고 있다. 성공요인은 첫째, 마을 전통자원 보전(전통주택, 담장, 마을안길, 마을 산책로 등)이며, 둘째,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 셋째, 마을 자치회가 발달되어 마을에서 공동상점,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기존 거주민과 새로운 이사는 온 마을 거주민과의 조화이다. 다섯째, 신축 건물을 조성할 때에도 기존 건축물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진 것에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점이다.

3. 국내·외 신문화공간사업 성공사례 종합분석

국내외 신문화공간 사례를 추진주체에 따라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구분하고,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지향성과 주민공동체지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선아리랑문화활동, 진안예코뮤지엄, 임실치즈마을, 단양한드미마을, 예천삼강주막, 일본시바손, 일본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일본카시마전통건물보전, 영국콘월식물원마을, 프랑스디낭권역 농촌관광개발 등은 정부주도에 보다 가까우며, 양평구둔영화마을, 음성황토명상마을, 파주헤이리마을, 원주모두곶농촌극장, 음성짚풀공예마을, 통영동피랑마을, 산청민들레마을, 서울성미산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일본미야마초가야부키마을, 일본와라비노계단논마을, 독일Altusried마을 아

외공연장, 영국다운엠프니마을의 경우 민간주도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Jetra Valley 개발권역과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의 경우 정부주도와 민간주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성과 주민공동체지향성으로 구분하면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예천삼강주막, 양평구둔영화마을, 음성향토명상마을, 파주헤이리마을, 프랑스디낭권역농촌관광개발, 영국콘월식물원마을, 일본시바손, 일본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일본카시마전통건물보전, 스페인 Jetra Valley 개발권역, 일본미야마초 가야부키마을, 일본와라비노계단논마을, 독일 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의 경우 시장지향성에 보다 가까우며, 정선아리랑문화활동, 진안에코뮤지엄, 장수하늘소마을, 원주모두골농촌극장, 서울성미산마을, 음성짚풀공예마을, 통영동피랑마을, 산청민들레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영국다운엠프니마을의 경우 주민공동체지향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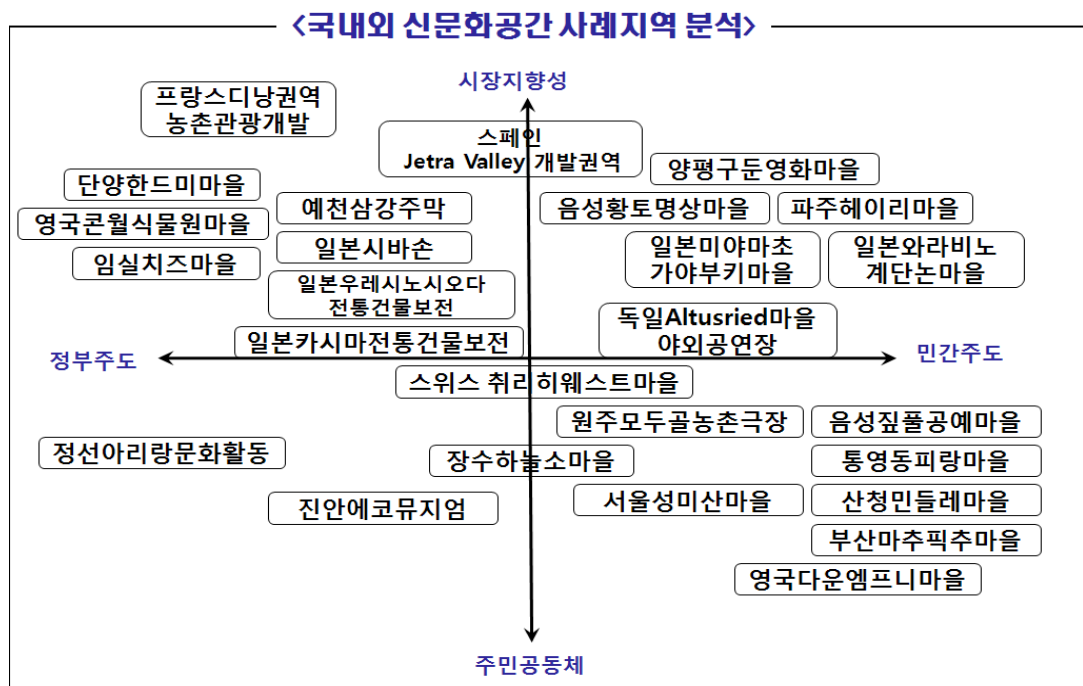


그림 3. 국내외 신문화공간 사례지역 분석

신문화공간조성 유사사업 성공사례 특성을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2) 개별공간의 경우 음성짚풀공예마을과 양평구둔영화마을이 해당하며, 거점공간은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원주모두골농촌극장, 음성향토명상마을, 예천삼강주막, 장수하늘소마을, 와라비노 계단논마을, 미야마초 가야부키마을, 콘월식물원마을, 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이, 연계공간은 정선아리랑문화활동, 파주헤이리마을, 서울성미산마을, 산청민들레생태마을, 진안에코뮤지엄, 통영동피랑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시바손마을, 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카시마 전통건물보전, 다운엠프니마을, 디낭(Dinan)권역 농촌관광개발, Jerta Valley 개발권역, 취리히웨스트마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문화공간조성 유사사업 성공사례 특성분석

국가	유형	대상마을	주요활동	시사점
한국	개별 공간	음성짚풀공예마을	-노인여가 활용 짚풀공예 -짚풀공예박물관	내림섬씨 전파, 주민 자긍심
		양평구둔영화마을	-마을주민 영화제작	주민주도 문화공간창출
	거점 공간	단양한드미마을	-산촌유학 및 농촌체험 -전통음식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지역자원 연계개발
		임실치즈마을	-유가공식품 -치즈체험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농촌마을 비즈니스 모델
		원주모두곶농촌극장	-농촌마을극장, -폐교활용 예술인촌 조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참여
		음성황토명상마을	-황토주택학교 -명상체험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귀농사례
		예천삼강주막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삼강주막 복원	지역가치 발굴 · 조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수하늘소마을	-순환농업시범단지조성 사업 -공동체적인 도농직거래	귀농자들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의지
		정선아리랑문화활동	-장터아리랑 공연 -아라리촌 공개공연 -정선아리랑 난타공연 등	지자체주도 지역문화공간조성
	연계 공간	파주해이리마을	-세계적인 건축박물관 -예술인 집단촌	투명한 운영 저명인사 귀촌 및 리더십
		서울성미산마을	-공동카페, 동네부엌 -두레생협, 극장, 마포FM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
		산청민들레생태마을	-민들레학교, 민들레농장 -대안기술센터 -민들레아트센터	신앙공동체 지도자의 헌신과 열정 새로운 생태기술 습득(영국유학)
		진안에코뮤지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박물관	민-관-학의 삼자협력 체계
		통영동피랑마을	-철거지역 낡은 담벼락에 벽화	민간주도 보잘 것 없는 곳이지만 주민들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것은 훌륭한 문화공간 변모
		부산 감천동 마추픽추마을	-2-3층 슬라브집 집단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옛 모습을 보전 재생하여 관광명소화
일본	연계 공간	시바손마을	-전통건축 복원	전통 건축물을 우선 복원한 후 관광 등 연관사업 추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형복원보다는 생활 편의를 고려
	거점 공간	와리비노 계단논마을	-계단논 보존	지자체의 관심과 지역주민의 의지
	연계 공간	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전통적 건축물 보존	전통건축물 뿐만 아니라 현대식 건물도 전통건물과 유사하게 개조하도록 지원
	연계 공간	카시마 전통건물보전	-전통적 건축물과 거리 보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됨
	거점 공간	미야마초 가야부키마을	-일본 전통 역새폴초가집 보전	마을 전가구 출자 전체주민 참여(유한회사) 지역농산물과 관광이 연계
영국	거점 공간	콘월식물원마을	-식물원 조성 -텃밭, 기후변화 지구적 문제 이슈	주민들이 행복해야 성공
	연계 공간	다운엠프니마을	-전통보존마을(Best Kept Village) 수상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 수립 마을 자치회 발달 신축건물도 구건물과 비슷하게 조성
독일	거점 공간	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조성	마을주민이 모두 배우로 참여 마을주민 조직체 자발적 참여
프랑스	연계 공간	디낭(Dinan)권역 농촌관광 개발	-농가민박	역사문화유적 보전 농촌개발기구(Pays)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스페인	연계 공간	Jerta Valley 개발권역	-체리생산과 관광 연계	계단식 체리밭과 관광연계 지역전통자원보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위스	연계 공간	취리히웨스트마을	-공장지대를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폐산업시설과 문화접목 관광과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국내·외 성공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Agency)가 설립되어 마을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수행(스페인, 독일, 프랑스 사례, 서귀포 가시리 개발사례)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주민주도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비즈니스 모델)(영국, 스페인, 스위스). 또한 정부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모금된 자체 사업비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다(영국).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일본 시바손, 영국 콘월 등)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이 충분히 장기적이었다(일본 10년간 지속, 영국 8년).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며(일본), 마을고유의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참여하고 있었다(원주모두골, 부산맞추픽추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주민의 참여(서울성미산, 산청민들레, 양평구둔영화마을), 귀농, 귀촌인들의 중심적인 역할(산청민들레,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이 전통문화보존지구로 설정되면 비록 오래되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도 전통건물보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하고 있었으며(일본, 스위스, 스페인),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있었다(일본, 영국).

<표 3> 국내외 사례 요약

< 국내외사례 요약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향성을 가진 사례와 주민공동체를 지향한 사례로 구분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향: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예천삼강주막, 음성황토명상마을 · 주민공동체: 서울성미산마을, 산청민들레마을,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 - 정부주도 사례와 민간주도사례로 구분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정선아리랑, 장수하늘소마을 · 민간주도: 파주혜이리, 서울성미산, 산청민들레마을, 음성황토명상마을, 부산 마추픽추, 통영 동피랑 -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주민참여(서울성미산, 산청민들레, 양평구둔영화마을) - 귀농, 귀촌인들의 중심적인 역할(산청민들레,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 - 마을의 전통자원을 발굴 활용(예천삼강주막) -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참여(원주모두골, 부산 맞추픽추, 통영 동피랑마을) -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제시(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행복해야 사업이 성공한다(영국) -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스위스, 일본, 독일, 스페인 사례) -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일본, 영국, 독일 사례) -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있음(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일본, 영국) - 지역이 전통문화보존지구로 설정되면 비록 오래되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도 전통건물보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하고 있음(일본, 스위스, 스페인 사례)

4절 결론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어촌에는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로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개념설정과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 차원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는 총 26개 지역의 사례를 심층면접조사와 2차 자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신문화공간 사례를 정부주도와 민간주도, 시장지향성과 주민공동체지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선아리랑문화활동, 진안에코뮤지엄, 임실치즈마을, 단양한드미마을, 예천삼강주막, 일본시바손, 일본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일본카시마전통건물보전, 영국콘월식물원마을, 프랑스디낭권역 농촌관광개발 등은 정부주도에 보다 가까우며, 양평구둔영화마을, 음성황토명상마을, 파주헤이리마을, 원주모두곶농촌극장, 음성짚풀공예마을, 통영동피랑마을, 산청민들레마을, 서울성미산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일본미야마초가야부키마을, 일본와라비노계단논마을, 독일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 영국다운엠프니마을의 경우 민간주도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Jetra Valley 개발권역과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의 경우 정부주도와 민간주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성과 주민공동체지향성으로 구분하면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예천삼강주막, 양평구둔영화마을, 음성황토명상마을, 파주헤이리마을, 프랑스디낭권역농촌관광개발, 영국콘월식물원마을, 일본시바손, 일본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일본카시마전통건물보전, 스페인 Jetra Valley 개발권역, 일본미야마초 가야부키마을, 일본와라비노계단논마을, 독일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의 경우 시장지향성에 보다 가까우며, 정선아리랑문화활동, 진안에코뮤지엄, 장수하늘소마을, 원주모두곶농촌극장, 서울성미산마을, 음성짚풀공예마을, 통영동피랑마을, 산청민들레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스위스 취리히웨스트마을, 영국다운엠프니마을의 경우 주민공동체지향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 유사사업 성공사례 특성을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공간의 경우 음성짚풀공예마을과 양평구둔영화마을이 해당하며, 거점공간은 단양한드미마을, 임실치즈마을, 원주모두곶농촌극장, 음성황토명상마을, 예천삼강주막, 장수하늘소마을, 와라비노 계단논마을, 미야마초 가야부키마을, 콘월식물원마을, Altusried마을 야외공연장이, 연계공간은 정선아리랑문화활동, 파주헤이리마을, 서울성미산마을, 산청민들레생태마을, 진안에코뮤지엄, 통영동피랑마을, 부산마추픽추마을, 시바손마을, 우레시노시오다 전통건물보전, 카시마 전통건물보전, 다운엠프니마을, 디낭(Dinan)권역 농촌관광개발, Jerta Valley 개발권역, 취리히웨스트마을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국내외 성공사례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Agency)가 설립되어 마을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수행(스페인, 독일, 프랑스 사례, 서

귀포 가시리 개발사례)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주민주도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비즈니스 모델)(영국, 스페인, 스위스). 또한 정부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모금된 자체 사업비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다(영국).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일본 시바손, 영국 콘월 등)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이 충분히 장기적이었다(일본 10년간 지속, 영국 8년).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하며(일본), 마을고유의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참여하고 있었다(원주모두골, 부산맞추픽추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주민의 참여(서울성미산, 산청민들레, 양평구둔영화마을), 귀농, 귀촌인들의 중심적인 역할(산청민들레,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역이 전통문화보존지구로 설정되면 비록 오래되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도 전통건물보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하고 있었으며(일본, 스위스, 스페인),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있었다(일본, 영국).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절 : 목표대비 대외달성도

연구개발의 목표는 신문화공간사업의 개념설정과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 신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절 :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논문게재>

2009년

박덕병 · 손은호 · 김경희, 체재형 가족농원 이용자의 요구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33-49.

박덕병,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 지역사회애착심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47-262.

박덕병 · 윤유식 · 이민수,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농촌 체재형 가족농원 관광상품개발. 관광학연구 33(1): 303-325.

<논문발표>

2009년

김경희 · 박덕병 · 김미희, 수도권지역의 전통 다식(茶食)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한국농업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김경희 · 박덕병 · 김미희, 여성 차소비자들의 전통차전문점 선택시 고려요인. 한국농업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2010년

김경희 · 박덕병 · 김미희, 차 소비자의 차문화교육 요구도. 한국농업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정책제안>

2009년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제안

2010년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사례 성공요인 제안

<간행물>

2009년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사례(책자)

<기타성과>

○워크숍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워크숍 및 동기화교육(농진청 1회, 농식품부 6회)

○홍보

2010년

‘초보 도시농부의 농사짓기 이렇게 하라’ 공감코리아 기고 1건

‘초보 농부 ’주말농장 선택은 이렇게 하라‘ Weekly 공감 기고 1건

‘주말농민 33만시대 초보농부가 알아야 할 것들’ 과학원예 기고 1건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효과적인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성공요인을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공요인 제안’으로 정책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문화 및 여가시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참고문헌

- 곽수정(2007). 유희(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방안.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 류정아(2010).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상희(2008). 도심내 문화공간의 경관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ennan, M. A., Flint, C. G. & Luloff, A. E. (2009) Bring Togher Local 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inding from Ireland, Pennsylvania and Alaska. *European Society for Rural Sociology* 49(1): 97-112.
- Alexander, N. & McKenna, A. (1998) Rural Tourism in the Heart of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0(5): 203-207.
- Cloke, P. (1993) The countryside as a commodity: New spaces for Rural Leisure. In *Leisure and Environment* (pp. 53-67), Glyptis, S. (ed.) London: Belhaven Press.
- Fleischer, A. & Felsenstein, D. (2000) Support for Rural Tourism: Does It Make a Differ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4): 1007-1024.
- Getz, D. & Page, S. (1997)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Rural Business Development. In *the Business of Rural Tour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91-205), Page, S. & Getz, D. (eds). London: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Hjalager, A-M. (2004) Sustainable Leisure Life Modes and Rural Welfare Economy: The Ccase of the Randers Fjord Area, Denmark.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6: 177-188.
- Jenkins, J., Hall, C. M. & Troughton, M. (1998) The Restructuring of Rural Economies: Rural Tourism and Recreation as a Government Response. In *Tourism and Recreation in Rural Area* (pp. 43-68), Butler, R., Hall, C. M., Jenkins, J. (eds). Chichester: Wiley.
- Nilsson, P. (1999) Tourism's Role in a New Rural Policy for Peripheral Areas: The Case of Archipelago. In *Case Studies of Tourism in Peripheral Areas* (pp. 157-180), Brown, F. & Hall, D. (eds). Nexø: Bornholms Forskningscenter.
- Van Der Ploeg, J. D., Renting1, H., Brunori, G., Knickel, K., Mannion, J., Marsden, T., De Roest, K., Sevilla-Guzmán, E. & Ventura, F.(2000) Rural Development: From Practices and Policies towards Theory. *Sociologia Ruralis* 40(4): 391-408.
- Ray, C. (1998)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rritorial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38(1): 3-20.
- Smith, M. & Krannich, R. (2000) Culture Clash Revisited: Newcomer and Longer-term Residents' Attitudes toward Land Us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Rural Communities of the Rocky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65(3): 369-421.

<세부과제2: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분석>

제 1 장 서 론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어촌에는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로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관광 분야의 정책들은 지역문화나 농촌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Bayliss, 2004; Brennan, Courtney, & Luloff, 2008; Cloke, 1993; Getz and Page, 1997; Johannesson, Skaptadottir, & Benediktsson, 2003; Juska, Poviliunas, & Pozzuto, 2005; Panelli, Stolte, & Bedford, 2003; Ray, 1998; Smith & Krannich, 2000). 그러나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Alexander & McKenna, 1998; Nilsson, 1999; Jenkins, Hall, & Troughton, 1998; Sharpley, 2002). 특히 Sharpley (2002), Hjalager(1996)과 Opperman(1997)는 농촌관광개발이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긍정적인 손익분기점이 불확실하여 농촌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Fleischer & Felsenstein, 2000). 특히 관광개발로 지역문화가 파괴되고, 문화적 전통이 희생되거나 획일화된 대중소비패턴으로 대체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Hjalager, 2004).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이 주도하여 농촌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나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농식품부, 2009). 농어촌 지역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지역주민간·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는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주며,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무대를 제공한다(Brennan, Flint, & Luloff, 2009).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프랑스는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클레르보의 카페(Le Cafe de Clairvaux)의 경우 마을입구의 창고와 외양간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사실상 용도가 폐지

된 상태였고, 1982년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하는 곳에서 매입하였다. 지방특유의 돌인 붉은 사암으로 건축되어 지방특색이 잘 반영되어 있고, 인근의 마을성당도 같은 재료로 건축하였다. 경제적 이유와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소의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임대주택 형식의 건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브렌스의 가내수공업 회사(Maison des entreprises du PNR de la Brenne)의 경우 창고를 가내수공업 공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창고용 건물로 지역 고유의 재료인 빨간 돌로 지어져 지역 건축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존의 시설을 유지시키면서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원, 학교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지역문화 유산이 담겨있는 소재들을 발굴해 녹색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브렌스 중심에 있는 농가와 부속건물들을 개조, 지방문화를 소개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지방의회에서는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창고용 건물들을 매입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사무실용 건물로 보수공사,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판매시설, 간이음식점, 가내수공업 공장용 건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생 일리에르 수 샤를리유의 '한 지붕'(Le grand couvert de Saint-Hilaire-Sous-Charlieu)의 경우 수도원의 창고를 문화행사의 장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생 일리에르 수 샤를리유의 '한지붕'은 이 지방의 전통적인 농경생활과 일상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지붕을 가진 건축물로 과거 수도원의 창고로 쓰이다가 여러 부속사와 합쳐지면서 농부들의 주거용으로 바뀌었다(면장인 Mr. Ballandras는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 농기구 소리, 전통음악·방언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으며, 당시 생활모습 등을 모형으로 재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야기 동산, 콘서트, 지방토산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빨로 델 비드르(Palau Del Vidre)의 유리공예 전시장의 경우 포도주 창고를 유리공예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빨로 델 비드로는 오래 전부터 유리공예가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유리공예가인 F. Brillard가 마을중심에 있는 버려진 포도주 창고를 유리공예 작업실, 전시실, 판매장으로 개조하였다. 유리공예 작업실, 전시실,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포도주 창고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유산적 가치는 이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까니 바르빌(Cany-Barville)의 도서관과 문화센터는 버려진 농가와 부속사 등을 마을내 문화시설 등으로 개조하였다. 인구 3,400명이 살고 있는 까르빌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정착해 사는 곳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리모델링에 사용된 건축물은 17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로 당시 건축적인 특성과 지방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어, 원형의 상태대로 복원하여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확충하여 지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에서는 정미소를 박물관으로 개조하였다. 기록사진, 영상물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주체의식을 고취하고 도시인에게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실 정미기계 시설, 2실 사진 갤러리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지리산 바이오랜드는 구례군 1백여 농가가 모여 만든 군단위의 농촌관광협의체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유·무형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민박, 호텔, 농장, 향토음식점, 지역특산물업체 등이 조직되어 농사·문화체험, 레포츠, 문화유산 답사, 농산물판매, 숙박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홈 쇼

평몰 '구례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프에도 가입(년간 방문객 1만 여명)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은 평창군내 체험마을협의회, 해피스테이협의회, 레포츠협의회, 평창그린투어센터 등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농박브랜드화, 평창GT운영, 레포츠콘텐츠개발, 브랜드 마일리지 구축 및 상품권 발행, 실시간 예약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지리산 칠선계곡의 경우 지리산 칠선계곡의 '두지터'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5가구 10명)가 거주하는 곳에 이주한 다구(茶具)제작자인 문상희씨가 담배건조장을 찻집으로 개조하였다. 흙으로 지은 담배막에 '흙내'라는 나무간판을 걸고 약초차(茶) 연구에 몰두, 인터넷을 통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의 경우 농협창고를 개조하여 광대패 '모두골'에서 영화상영, 축제준비공연, 문화예술학교, 체험학교 등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주부예술단 '모악', 청소년예술단에서 활용하는 등 지역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의 백운에코뮤지엄 답사코스의 경우 광역범위의 공간에 조성되어진 '지붕 없는 농촌전원 박물관' 구상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하드웨어 시설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자원 찾기'에서 출발하여 개별공간과 사람, 무형자산 등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재육성에 기본 중심을 두고 접근하였다. 5개 코스로 구성된 답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전거, 문화관광, 공공미술, 구름땅 달빛걷기, 흰구름 지도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개선뿐만이 아닌 일상의 삶의 수준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자원의 활용과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류정아, 2010).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는 무엇보다도 사업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은 횡성, 옥천, 서산, 완주, 서귀포, 의성 등 6개 신문화공간 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1차 조사), 2009년 8월 25일 부터 11월 10일(2차 조사)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3차 조사)은 6개 신문화공간사업 지역주민 309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2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은 빈도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효과 영향요인 분석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갈등원인 및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수준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및 갈등수준 인식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2절 연구내용

횡성, 옥천, 서산, 완주, 서귀포, 의성 등 6개 신문화공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참여정도, 계획수립, 사업추진방향, 추진체계, 사후관리,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차이, 마을 비즈니스사업 선호정도, 사업효과 영향요인,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주민들의 갈등원인,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지역별 갈등수준 인식 차이 등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분석을 위한 조사대상 지역주민의 수는 표 1과 같다. 1차 조사에서는 횡성 100명, 옥천 45명, 서산 54명, 완주 31명, 서귀포 172명, 의성 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횡성 34명, 옥천 43명, 서산 35명, 완주 19명, 서귀포 96명, 의성 1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조사대상 지역주민

지 역	가구수	주민수(명)	조사 주민수(명)	
			1차 조사	2차 조사
횡 성	342	768	100	34
옥 천	117	240	45	43
서 산	88	205	54	35
완 주	50	120	31	19
서귀포	449	1,172	172	96
의 성	81	188	36	139
계	1,127	2,693	438	366

3절 연구결과

1.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마을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1차 56.8%에서 2차 65.8%로 증가하였다.

<표 2> 마을추진계획 주민의견 반영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1차조사	83(18.9)	166(37.9)	65(14.8)	23(5.3)	2(0.5)	438(100.0)
2차조사	59(16.2)	191(52.3)	96(26.3)	15(4.1)	4(1.1)	365(100.0)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차 조사 71.7%에서 2차 조사 93.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예	아니오	합계
1차조사	314(71.7)	29(6.6)	438(100.0)
2차조사	341(93.2)	25(6.8)	366(100.0)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모임 참여횟수는 6회 이상이 1차 조사 22.5%에서 2차 조사 33.8%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추진방향은 ‘마을문화자원보전’이 1차 조사 25.2%에서 2차 조사 49.7%로 증가하였다.

<표 4> 사업추진방향

	마을문화자원 보전	주민의 문화생활 지원	수익사업	합계
1차조사 (다중응답)	171(25.2)	249(36.7)	173(25.5)	678(100.0)
2차조사	168(49.7)	136(40.2)	34(10.1)	338(100.0)

마을 유희시설 복원 주체는 ‘마을주민’이 1차 조사 50.7%에서 2차 조사 66.9%로 증가하였다.

<표 5> 마을 유희시설 복원 주체

	마을주민	전통주택복원	건설업자	공무원	기타	합계
--	------	--------	------	-----	----	----

		기능보유자				
1차조사 (다중응답)	302(50.7)	96(16.1)	28(4.7)	46(7.7)	28(4.7)	596(100.0)
2차조사	242(66.9)	74(20.4)	18(5.0)	22(6.1)	6(1.7)	362(100.0)

사업운영주체는 ‘마을위원회’가 1차 조사 66.2%에서 2차 조사 90.0%로 증가하였다.

<표 6> 사업운영주체

	마을위원회	영농조합	영농회사법인	합계
1차조사	290(66.2)	19(4.3)	25(5.7)	438(100.0)
2차조사	324(90.0)	21(5.8)	15(4.2)	360(100.0)

사업종료 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지원은 ‘마을사업홍보’가 1차 조사 15.3%에서 2차 조사 24.9%로 증가하였다.

<표 7> 사업종료 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지원

	마을사업홍보	문화공간운영	유지보수지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	합계
1차조사	67(15.3)	61(13.9)	145(33.1)	62(14.8)	438(100.0)
2차조사	90(24.9)	72(19.9)	140(38.7)	53(14.6)	362(100.0)

개별적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5.6%로 나타났다.

<표 8> 개별적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계획에 적극 참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차조사	133(36.5)	106(29.1)	77(21.2)	40(11.0)	8(2.2)	364(100.0)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이 끝난 후 지속적인 운영’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중단’이 16.1%, ‘주민참여부족’이 15.5%,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구입’이 13.2%, 사업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12.8%, ‘마을리더의 지도력문제’가 5.3%로 나타났다.

<표 9>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중단	사업이익 분배를 둘러싼 주민갈등	마을리더의 지도력문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구입	주민참여 부족	사업이 끝난 후 자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합계
2차조사	49(16.1)	39(12.8)	16(5.3)	40(13.2)	47(15.5)	111(36.5)	304(100.0)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컨설팅 전문가의 계획수립 컨설팅, 담당 공무원의 협조 및 지원, 컨설팅업체의 주민의견반영 정도의 경우 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마을 지도자의 지도력은 서산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

	횡성	옥천	서산	완주	의성	서귀포	F
컨설팅 전문가의 계획수립 컨설팅	3.70bc	3.46b	2.91a	3.84c	3.92c	3.39b	13.832***
담당 공무원의 협조 및 지원	3.65ab	3.76ab	3.97b	3.74ab	3.99b	3.42a	7.781***
마을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3.47a	3.83bc	4.11c	4.05c	4.04c	3.51ab	9.186***
컨설팅업체의 주민의견반영 정도	3.30a	3.61ab	3.71b	3.68ab	4.28c	3.43ab	17.936***
마을 지도자의 지도력	3.35a	4.00b	4.41c	3.68ab	4.39c	3.43a	25.588***

***p<0.001

마을 비즈니스사업 선호정도는 횡성의 경우 만물상점(3.14), 옥천은 예곡폐교 “문화공간예곡”(3.72), 서산은 마을회관 증축-전통문화상품 생산/판매(3.04), 완주는 비비정원레스토랑(3.61), 서귀포는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3.17)에 대한 선호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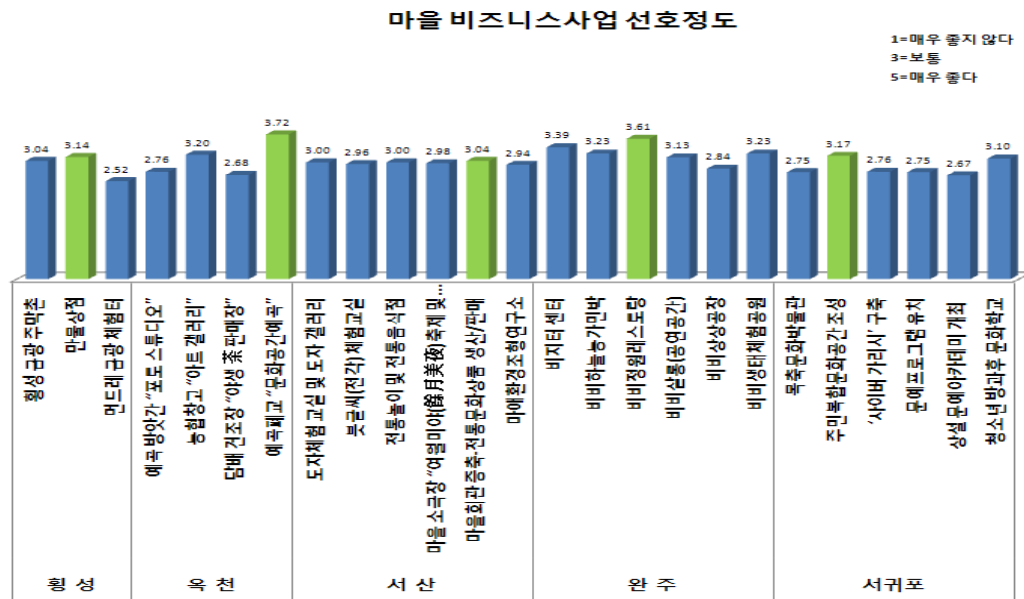


그림 1. 마을 비즈니스사업 선호정도

2.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6개 신문화공간사업(황성, 서산, 옥천, 의성, 완주, 서귀포) 지역주민 309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효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사업효과 인식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환경,경제요인, 긍정적경제요인, 긍정적사회문화요인, 부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11> 지역주민 사업효과 인식 요인분석 결과

영향인지변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크론바 알파	평균
요인 1: 부정적 환경/경제요인		5.05	21.06	.92	2.34
평소보다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다.	.815				2.37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발생과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801				2.39
관광객 증가에 의한 소음공해가 늘어날 것이다.	.796				2.30
평소보다 지역내 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781				2.26
관광객증가로 문화재 및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다.	.776				2.13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711				2.31
부동산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697				2.56
요인 2: 긍정적 경제요인		4.57	19.05	.93	3.73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829				3.75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808				3.65

다른 지역과의 경제교류관계가 활발해질 것이다	.804				3.79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796				3.84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752				3.61
요인 3: 긍정적 사회/문화요인		3.28	13.65	.88	4.05
지역의 홍보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842				4.16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다.	.770				4.17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704				3.98
청소년들에게 교육적효과를 상승시킬 것이다.	.619				3.96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577				3.96
요인 4: 부정적 사회/문화요인		3.12	12.99	.92	2.05
평소보다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802				2.09
관광객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이다.	.783				2.05
관광객증가로 이웃간의 유대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764				1.93
관광객의 증가로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다.	.727				2.13
요인 5: 긍정적 환경요인		2.16	8.98	.84	3.86
도로의 확장 및 포장 등과 같이 도로의 사정이 개선될 것이다.	.783				3.69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등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763				3.90
마을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다.	.658				4.01
설명분산의 누적값 =75.73%, KMO = 0.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6577.648(df=276, p<.001)$					

a: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업효과 인지 군집분석 결과 부정적 영향인지집단, 긍정적 영향인지집단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영향인지집단의 경우 부정적환경,경제요인과 부정적사회문화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영향인지집단의 경우 긍정적경제요인과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12> 지역주민의 사업효과 인지 군집분석 결과

	영향인지	부정적영향인지집단 (n=175)	긍정적영향인지집단 (n=185)	F
K-means	부정적환경,경제요인	2.90	1.78	258.190***
	긍정적경제요인	3.20	4.22	193.488***
	긍정적사회문화요인	3.66	4.41	208.198***
	부정적사회문화요인	2.60	1.52	263.368***
	긍정적환경요인	3.37	4.32	190.255***

***p<.001

지역주민의 사업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내기 위해 사회경제학적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향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영향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기간, 연간 가구소득, 자가소유면적, 벼농사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종사기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주민의 사업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인(Variable)	계수(B)	S. E.	Wald	Exp(B)
상수	-2.304	2.046	1.268	.100
연령	.038	.025	2.295	1.039
성별	.185	.503	.135	1.203
학력	-.030	.261	.013	.970
고향여부	.229	.499	.210	1.257
귀농여부	-.856	.637	1.808	.425
거주기간	.046	.022	4.443**	1.047
영농종사기간	-.091	.030	9.082***	.913
연간 가구소득	.481	.156	9.555***	1.618
자기소유 경지면적	.000	.000	5.237**	1.000
주작목			16.462***	
과수	1.116	.817	1.867	3.052
채소	-1.049	1.102	.907	.350
축산	-1.061	1.145	.858	.346
특용	-.322	.999	.104	.724
벼농사	.042	.987	.002	1.043
비농가(ref)	-	-	-	-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 $\chi^2=67.46*(df=14)$ * 초기모형(상수만 존재) -2LL = 242.450, 추정모형 -2LL = 174.993 Pseudo R-Square (Cox and Snell=.311, Nagelkerke=.422) 예측정확도 : 76.8%, Hosmer and Lemeshow test : 4.430(sig.=.816)				

*p<.1 **p<.05 ***p<.01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 부정적환경/경제요인(-) 순으로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7	.30		5.60	.000
부정적환경,경제요인	-.11	.05	-.12	-2.02	.044

긍정적경제요인	-.04	.05	-.04	-.72	.471
긍정적사회문화요인	.62	.07	.49	8.50	.000
부정적사회문화요인	-.10	.06	-.10	-1.76	.080
긍정적환경요인	.15	.05	.15	2.99	.003
전반적 지지: $R^2=.456$ 수정된 $R^2=.449$ $df=5$ $F=59.265$ $p=.000$					

※ 주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회문화요인을 강화하고 부정적 환경/경제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업효과 인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갈등원인은 주민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며,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며, 주민들 간의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충돌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항목	긍정적 영향인지집단	부정적 영향인지집단	t-value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2.01	2.71	2.503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다	2.61	2.92	3.378*
사업목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	2.37	2.87	.153
특정인들이 독선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2.28	2.88	.054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2.54	2.91	1.323
지역주민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	2.31	2.74	1.164
주민들 간에 서로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충돌이 심하다	2.18	2.76	5.450**
주민들 간에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	2.25	2.91	1.588
이해관계자의 의견충돌이 심하다	2.26	2.91	.316
주민들이 의견 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다	2.52	3.20	8.559***
사업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2.73	3.32	1.282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다	2.37	3.04	12.130***

* $p<.1$ ** $p<.05$ *** $p<.01$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 빈도에서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수준 차이

항목	긍정적 영향인지집단	부정적 영향인지집단	t-value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 간 대립 정도	2.38	2.83	.948
사업추진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정도	2.23	2.80	.120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2.31	2.80	4.229**
주민들 간의 언쟁 빈도	2.08	2.74	.033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 빈도	1.81	2.30	6.798***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조정 빈도	2.02	2.68	.097

*p<.1 **p<.05 ***p<.01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갈등원인에서 지역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의 경우 횡성, 옥천, 서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다’의 경우 횡성, 옥천, 의성,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목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횡성, 옥천, 의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인들이 독선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불명확하다’의 경우 횡성, 의성,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횡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 간에 서로 개발이익 충돌이 심하다’, ‘주민들 간에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의 경우 횡성, 옥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충돌이 심하다’는 횡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횡성과 의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성과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 전달에 왜곡이 많다’는 옥천과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횡성 (n=58)	옥천 (n=11)	서산 (n=41)	완주 (n=15)	의성 (n=83)	서귀포 (n=90)	전체	F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2.64	2.55	2.59	2.27	2.18	2.24	2.36	2.641*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다	3.11 ^b	3.30 ^b	2.15 ^a	2.14 ^a	2.83 ^{ab}	2.76 ^{ab}	2.75	6.694***
사업목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	2.98 ^b	2.73 ^{ab}	2.02 ^a	1.93 ^a	2.76 ^{ab}	2.58 ^{ab}	2.60	7.148***
특정인들이 독선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2.83	2.55	1.95	2.21	2.69	2.67	2.58	4.787**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2.96 ^b	2.45 ^{ab}	2.05 ^a	2.27 ^{ab}	2.85 ^{ab}	2.84 ^{ab}	2.72	6.701***
지역주민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	2.93 ^b	2.30 ^{ab}	1.93 ^a	2.40 ^{ab}	2.58 ^{ab}	2.57 ^{ab}	2.53	7.157***
주민들 간에 서로 개발이익 충돌이 심하다	2.82 ^b	2.73 ^{ab}	1.98 ^a	2.33 ^{ab}	2.48 ^{ab}	2.47 ^{ab}	2.48	4.500***
주민들 간에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차가 심하다	2.90	2.73	2.24	2.07	2.60	2.53	2.57	3.556**
이해관계자의 의견충돌이 심하다	2.78 ^b	2.55 ^{ab}	2.38 ^{ab}	1.80 ^a	2.60 ^{ab}	2.58 ^{ab}	2.56	3.183**
주민들이 의견 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다	2.91 ^{ab}	2.55 ^{ab}	2.69 ^{ab}	2.07 ^a	2.99 ^b	2.89 ^{ab}	2.84	2.847*
사업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2.90 ^{ab}	2.91 ^{ab}	2.71 ^{ab}	2.20 ^a	3.25 ^b	3.09 ^b	2.99	4.223***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다	2.67 ^{ab}	2.73 ^b	2.69 ^{ab}	1.87 ^a	2.69 ^{ab}	2.76 ^b	2.67	2.420**

*p<0.05, **p<0.01, ***p<0.001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수준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 간 대립 정도’는 서산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추진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정도’,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주민들간의 언쟁 빈도’는 횡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간의 물리적 충돌 빈도’의 경우 서귀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조정 빈도’는 횡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수준 인식 차이

	횡성 (n=57)	옥천 (n=11)	서산 (n=41)	완주 (n=15)	의성 (n=79)	서귀포 (n=92)	전체	F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 간 대립 정도	2.70	3.00	2.71	2.33	2.44	2.63	2.60	1.457
사업추진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정도	2.80	2.72	2.19	2.27	2.47	2.54	2.52	2.813*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2.79	2.70	2.16	2.33	2.57	2.60	2.55	2.772*
주민들간의 언쟁 빈도	2.68	2.27	2.10	2.33	2.32	2.51	2.41	2.705*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 빈도	2.18 ^b	2.09 ^{ab}	1.38 ^a	2.00 ^{ab}	2.04 ^{ab}	2.35 ^b	2.07	7.903***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조정 빈도	2.60	2.18	2.12	2.20	2.36	2.35	2.36	1.504

*p<0.05, **p<0.01, ***p<0.001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역의 추진체계를 비교해 보면, 예산집행방식의 경우 횡성, 서산, 의성, 옥천은 전액보조 형태이며, 완주는 민간자본보조(소프트)와 전액 보조금(하드웨어)형태, 서귀포는 전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타났다. 사업비 발주처는 횡성, 서산, 의성, 옥천은 농어촌공사위탁 형태이며, 완주, 서귀포는 마을회(법인) 형태로 나타났다. 컨설팅 형태는 횡성, 서산, 의성, 옥천은 방문 형태, 완주는 방문 및 일시체류 형태, 서귀포는 상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횡성, 서산, 의성, 옥천의 경우 지자체-공사-사업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완주, 서귀포는 지자체-마을회-사업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지역 추진체계 비교

구 분	강원 횡성	충남 서산	경북 의성	충북 옥천	전북 완주	제주 서귀포
예산 (백만원)	2,500	2,849	2,000	1,405	2,800	2,000
주요사업	1.금석광산 2.오픈갤러리 3.사금채험 공간 4.마을도서관 5.아외공연장	1. 서 당 골 테크조성 2.구식이발 소와 주막이 있는 근대식 장터 재현	1.우물터, 전 통 가 옥 복원 2.숲을 이 용한 문화 산책로	1.방앗간을 활용한 포토 스튜디오 2. 폐 교 활 용 천연염색체험 3.감성예술학 교운영	1.서원 리모 텔링 2. 빈 집 이 용 농가레스토랑 3.요리학교	1.목감막 유 휴공간을 활 용한 목축문 화박물관 2. 목 축 문 화 프로그램, 교 실 개설
예산 집행방식	전액 보조	전액 보조	전액 보조	전액 보조	민간자본보조 (소프트) 전액 보조금 (하드웨어)	전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발주처	농어촌공사 위탁	농어촌공사 위탁	농어촌공사 위탁	농어촌공사 위탁	마을회 (법인)	마을회 (법인)
컨설팅 형태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및 일시체류	상주
사업 추진체계	지자체-공 사-사업자	지자체-공 사-사업자	지자체-공 사-사업자	지자체-공사 -사업자	지자체-마을 회-사업자	지자체-마을 회-사업자

※ 제주 서귀포 가시리 마을사례 : 보험사에 '선금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서 마을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비 집행. 연간 보험금 168만원 지급

4절 결론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은 횡성, 옥천, 서산, 완주, 서귀포, 의성 등 6개 신문화공간 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차 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수요자 요구분석은 6개 신문화공간사업 지역주민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은 빈도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효과 영향요인 분석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갈등원인 및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수준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 및 갈등수준 인식 차이는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마을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1차 56.8%에서 2차 65.8%로 증가하였다.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견 수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차 조사 71.7%에서 2차 조사 93.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모임 참여횟수는 6회 이상이 1차 조사 22.5%에서 2차 조사 33.8%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추진방향은 ‘마을문화자원보전’이 1차 조사 25.2%에서 2차 조사 49.7%로 증가하였다. 마을 유희시설 복원 주체는 ‘마을주민’이 1차 조사 50.7%에서 2차 조사 66.9%로 증가하였다. 사업운영주체는 ‘마을위원회’가 1차 조사 66.2%에서 2차 조사 90.0%로 증가하였다. 사업종료 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지원은 ‘마을사업홍보’가 1차 조사 15.3%에서 2차 조사 24.9%로 증가하였다. ‘개별적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5.6%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이 끝난 후 지속적인 운영’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중단’이 16.1%, ‘주민참여부족’이 15.5%,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구입’이 13.2%, 사업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12.8%, ‘마을리더의 지도력문제’가 5.3%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컨설팅 전문가의 계획수립 컨설팅, 담당 공무원의 협조 및 지원, 컨설팅업체의 주민의견반영 정도의 경우 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마을 지도자의 지도력은 서산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비즈니스사업 선호정도는 황성의 경우 만물상점(3.14), 옥천은 예곡폐교 “문화공간예곡”(3.72), 서산은 마을회관 증축-전통문화상품 생산/판매(3.04), 완주는 비비정원레스토랑(3.61), 서귀포는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3.17)에 대한 선호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사업효과 인식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환경,경제요인, 긍정적경제요인, 긍정적사회문화요인, 부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 결과 부정적 영향인지집단, 긍정적 영향인지집단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영향인지집단의 경우 부정적환경,경제요인과 부정적사회문화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영향인지집단의 경우 긍정적경제요인과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지역주민의 사업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내기 위해 사회경제학적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향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영향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기간, 연간 가구소득, 자가소유면적, 벼농사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종사기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 부정적환경/경제요인(-) 순으로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효과 인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갈등원인은 주민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며,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며, 주민들 간의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충돌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 빈도에서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갈등원인에서 지역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의 경우 횡성, 옥천, 서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다’의 경우 횡성, 옥천, 의성,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목표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횡성, 옥천, 의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인들이 독선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불명확하다’의 경우 횡성, 의성,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횡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 간에 서로 개발이익 충돌이 심하다’, ‘주민들 간에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의 경우 횡성, 옥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충돌이 심하다’는 횡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횡성과 의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성과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다’는 옥천과 서귀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갈등수준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 간 대립 정도’는 서산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추진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정도’, ‘이해집단들의 사업태도 불만정도’, ‘주민들간의 언쟁 빈도’는 횡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간의 물리적 충돌 빈도’의 경우 서귀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조정 빈도’는 횡성이 높게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회문화요인을 강화하고 부정적 환경/경제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절 : 목표대비 대외달성도

연구개발의 목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분석을 하는 것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분석과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관리 및 주민지지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2절 :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논문게재>

2009년

박덕병·이민수, EU의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0): 123-162.

박덕병, Determinants Influencing Residents' Perceived Tourism Impact in Rural Communities.

<논문발표>

2009년

김경희·박덕병·김미희,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녹차 기호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김경희·박덕병·김미희, 수도권 차(茶)소비자의 구매선택속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정책제안>

2010년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서 주민지지 유도 및 갈등관리 방안

<기타성과>

○회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연구추진 협의회 7회

○주민교육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대상 지역주민 교육 2회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주민갈등관리 및 주민지지 유도로 효과적인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서 주민지지 유도 및 갈등관리방안’을 정책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등관리 및 주민지지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방안. 과천: 농림수산식품부.
- 류정아(2010).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Alexander, N., & McKenna, A. (1998) Rural Tourism in the Heart of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0(5): 203–207.
- Bayliss, D. (2004) Denmark's Creative Potential: The Role of Culture within Danish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1): 5–28.
- Brennan, M. A., Courtney, G., & Luloff, A. E. (2008) Bringing Together Local 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indings from Ireland, Pennsylvania and Alaska. *Sociologia Ruralis* 49(1): 97–112.
- Cloke, P. (1993) The Countryside as a Commodity: New Spaces for Rural Leisure. In *Leisure and Environment* (pp. 53–67), Glyptis, S. (ed.) London: Belhaven Press.
- Fleischer, A., & Felsenstein, D. (2000) Support for Rural Tourism: Does It Make a Differ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4): 1007–1024.
- Getz, D., & Page, S. (1997)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Rural Business Development. In *the Business of Rural Tour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91–205), Page, S. & Getz, D. (eds). London: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Hjalager, A-M. (2004) Sustainable Leisure Life Modes and Rural Welfare Economy: The Case of the Randers Fjord Area, Denmark.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6: 177–188.
- Jenkins, J., Hall, C. M., & Troughton, M. (1998) The Restructuring of Rural Economies: Rural Tourism and Recreation as a Government Response. In *Tourism and Recreation in Rural Area* (pp. 43–68), Butler, R., Hall, C. M., Jenkins, J. (eds). Chichester: Wiley.
- Johannesson, G. P., Skaptadottir, U. D., & Benediktsson, K. (2003) Coping with Social Capital? the Cultural Economy of Tourism in the North. *Sociologia Ruralis* 43(1): 3–16.
- Juska, A., Poviliunas, A., & Pozzuto, R. (2005) Resisting Marginalisation: The Rise of the Rural Community Movement in Lithuania. *Sociologia Ruralis* 45(1–2): 3–21.
- Nilsson, P. (1999) Tourism's Role in a New Rural Policy for Peripheral Areas: The Case of Archipelago. In *Case Studies of Tourism in Peripheral Areas* (pp. 157–180), Brown, F. & Hall, D. (eds). Nexø: Bornholms Forskningscenter.
- Panelli, R., Stolte, O., & Bedford, R. (2003) The Reinvention of Tirau: Landscape as a Record of Changing Economy and Culture. *Sociologia Ruralis* 43(4): 379–400.
- Ray, C. (1998)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rritorial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38(1): 3–20.
- Smith, M., & Krannich, R. (2000) Culture Clash Revisited: Newcomer and Longer-term

Residents' Attitudes Toward Land Us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Rural Communities of the Rocky Mountain West. *Rural Sociology* 65(3): 369–421.

<세부과제3: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 개발>

제 1 장 서 론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주민간·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게 되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농어촌 주민에게는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서 아직 개발된 기술은 없다. 앞으로 관련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신문화공간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면접결과와 사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성과평가지표는 전문가 회의와 검토, 가중치분석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1)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추진전략개발

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관련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공영역별로 보면 지역복지계획 3명, 전통문화 4명, 농촌개발 4명, 농촌관광 2명, 조경디자인 4명, 담당공무원 1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개별 심층면접조사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하였으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문화생태, 문화공간의 계승과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수요충족, 자긍심 고양, 문화적자부심과 계승, 활용, 시너지효과로 소득연계하는 것으로 보았고, 농촌개발 전문가는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너지효과로 소득연계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사례계획수립방법으로 주민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부모임을 통해 주민참여를 하도록 한다는 의견이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문화공간 시설, 보수 재건에 참여하고, 문화공간 주도자로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교육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원발굴 조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선정시 참여하게 하며,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하는 것이 좋다. 중점사업내용 중 소득사업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개인별 테마설정 소득사업 참여 유도하라고 하였으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외가집, 처갓집의 개념으로 주민과 외지인의 문화적 동체감이 기본이어야 하며, 소득이 주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면서 구입해 가는 방향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촌개발 전문가는 신문화공간사업은 소득사업과 연계가 힘들 것으로 하였으며, 본래의 문화적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가면 차후에는 소득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당장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사업은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복원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하여 타지역 및 도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체험 등을 통하여 소득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지역의 전통축제인 동제를 복원하고 숙박체험을 통한 전통예절문화전과, 전통놀이문화재현을 하라고 하였으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해당마을, 해당문화공간의 '전통', '문화내용'을 철저히 조사 복원해야하며, 단 순보존/복원에서 현재적 수요와 관점(아이디어필요)을 더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문화전문가들의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문화 활동, 공공예술, 법인형태로 참여하고 인건비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을 가르쳐서 공간들이 계속 쓰여지도록 축제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앗간 형태와 집은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장소가 가지는 정체성을 보존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보존사업은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무형문화재 양성을 통해 사라져가는 문화 등 복원하고 현대와 접목을 통해서 문화창작활동을 즐기고, 문화상품을 창조하고 그것이 종래에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체계에서 주민협의회 조직에 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추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나아가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전환하라는 견해이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마을단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계획 및 관리를 하라는 의견이고,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마을중심체와 외부자문위원을 함께 구성하되, 주민들은 협의회가 오픈되어서 주민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라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추진위원회는 초기에는 현행대로 운영한 뒤 사업 종료 이후부터는 전체적인비영리법인 형태로 전환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전문가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전문가 검증을 통해 인력풀을 조성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문화원형조사와 활용자로 선택(역사, 민속, 사회학)하며, 전통공간(생태, 유형건축물)의 의미와 기능, 구조에 대한 전문가 영입, 교육, 소프트웨어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농촌개발(공무원포함)전문가는 초기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함. 농식품부에서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대학 전문가(대학교수, 학생)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라는 의견이었다.

종합하며보면 사업초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지역 대학 등 지역전문가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관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신문화조성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협력체제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전통문화 전문가는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청사업과 연계, 건물 및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도 하며,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전문가들이 농촌을 전문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융화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원, 디자인 진흥원, 지역 초중고와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신문화공간사업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협력단을 조직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추진전략에서 거점공간, 연계공간, 복합공간에 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거점공간은 인지도,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연계공간은 도로, 자전거길, 가로

수 조성 등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며, 복합공간은 용도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하고, 전통문화 전문가는 문화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에 거점공간을 설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연결통로로 연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라는 의견이고,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거점공간은 마을이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역의 부테마적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공간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복합적 기능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상 많이 왕래하고, 마을테마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을 거점공간으로 개발하며, 각각의 개별 문화공간, 테마장소와 연결하는 연계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각 공간별로는 테마와 스토리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연계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휴먼웨어가 우선 되어야 하며, 휴먼웨어 개발은 지역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민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효과적이며, 하드웨어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와 연관되게 조성하여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지역의 문화적 복원을 통하여 하드웨어를 설정하여 복원 설치하며, 지역의 유래와 문화적 공간의 역사성을 스토리로 잘 조사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무엇보다 문화적 관점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민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교육, 견학, 워크숍 등을 통하여 휴먼웨어개발에 역점을 두라는 의견이고,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휴먼웨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임. 휴먼웨어개발은 주민들의 장기와 숨씨를 도출하고, 희망사항을 조사하여 개발하도록 하며, 교육, 견학을 통하여 역량을 확대하며, 나아가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지역의 테마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설정한 후 여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조성하여야 하며, 휴먼웨어는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우선 지역민들이 잘 하고, 즐거워하는 테마를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스토리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휴먼웨어 개발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강의나 견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활동은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라는 의견이다.

평가내용에 포함할 항목으로는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문가는 지역주민의 사업만족도, 자긍심, 문화활동 정도 등을 조사하며, 파생되는 시너지는 3년이 지난 후에 소득, 방문객 등을 평가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전문가는 신문화공간사업의 농촌경제와 연계, 소득, 매출 증감율, 방문객수, 교육기회 확대, 전문가교류, 주민자치율, 사업관리, 주민참여비율, 주민 출자비율, 조직자립도, 하드웨어 독특성, 용도에 맞는 사업설정, 관리상태, 이용률, 가동률 등이며,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전문가는 주민만족도, 6개 마을 비교지표는 주변마을과 비교, 사전사후비교, 자긍심지수, 네트워크 마을의 경관, 아이덴티티 비교지표, 주변마을과 비교, 전문가가 만드는 평가시트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평가내용은 주민만족도 사전사후평가, 주민참여율, 자긍심지수, 지역애정도, 주민출자액, 조직의 자립도, 주변마을과 비교평가, 방문객수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전문가 인터뷰대상자 구성

구분	지역복지/계획	전통문화	농촌개발	농촌관광	조경디자인	담당공무원
인원	3	4	4	2	4	1

<표2> 전공영역별 사업내용별 전문가 의견

구 분		전 공 영 역		
		지역복지/계획/조경디자인	전통문화	농촌개발(공무원포함)
사업목적	전문가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임.	문화생태, 문화공간의 계승,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수요충족, 자긍심 고양, 문화적자부심과 계승, 활용, 시너지효과로 소득연계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이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임.
	결론	지역의 문화공간의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너지	효과로 소득연계
사례계 획 수립방법- 주민참여 방법	전문가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부모임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문화공간 시설, 보수 재건에 참여 문화공간 주도로 참여확대	교육을 통하여 참여유도, 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도록 함.
	결론	자원발굴 조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선정시 참여하게 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중점사업 내용-소득사업	전문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개인별 테마설정 소득사업 참여 유도	외가집, 처갓집의 개념으로 주민과 외지인의 문화적 동체감이 기본이어야 하며, 소득이 주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면서 구입해 가는 방향으로 구상 요망	신문화공간사업은 소득사업과 연계가 힘들 것임. 본래의 문화적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가면 차후에는 소득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당장 힘든 면이 있음, 따라서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보완
	결론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여 복원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하여 타지역 및 도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체험 등을 통하여 소득화		
문화보존 사업	전문가	지역의 전통축제인 동제를 복원하고 숙박체험을 통한 전통예절 문화전파, 전통놀이문화재현	해당마을, 해당문화공간의 '전통' '문화내용'을 철저히 조사 복원 요망되며, 단순보존/복원에서 현재적 수요와 관점(아이디어필요) 부가하여야 함.	문화전문가들의 역할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문화활동, 공공예술, 법인형태로 참여하고 인건비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만들고 주민들을 가르쳐서 공간들이 계속 쓰여지도록 축제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앗간 형태와 집은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장소가 가지는 정체성을 보존하고 파생상품이용
	결론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무형문화재 양성을 통해 사라져가는 문화 등 복원하고 현대와 접목을 통해서 문화창작활동을 즐기고, 문화상품을 창조하고 그것이 종래에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음.		
사업추진 체계-추진협의	전문가	추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나아가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전환	마을단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계획 및 관리를 하도록 함.	마을중심체와 외부자문위원을 함께 구성하되, 주민들은 협의회가 오픈되어서 주민중심의 협의체 조성

회 조직	결론	사업추진위원회는 초기에는 현행대로 운영한 뒤 사업 종료 이후부터는 전체적인비영리법인 형태로 전환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기관으로 운영함.		
전문가 참여방법	전문가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전문가 검증에 의해 인력풀을 조성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문화원형조사와 활용자로 선택 (역사, 민속, 사회학)하며, 전통 공간(생태, 유형건축물)의 의미와 기능, 구조에 대한 전문가 영입, 교육, 소프트웨어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기획함.	전문가는 초기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함. 농식품부에서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함 지역대학 전문가(대학교수, 학생) 활동이 지속되도록 함.
	결론	사업초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지역 대학 등 지역전문가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활동비 지원		
관련 기관과 방안	전문가	신문화조성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협력체제구축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청사업과 연계, 건물 및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전문가들이 농촌을 전문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융화가 되어야 함. 문화원, 디자인진흥원, 지역 초중고와 연계함.
	결론	신문화공간사업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협력단을 조직하여 지원하도록 함.		
추진 전략 거점, 연계, 복합공간	전문가	거점공간은 인지도,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연계공간은 도로, 자전거길, 가로수 조성 등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며, 복합공간은 용도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 복합공간으로 조성	문화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에 거점공간을 설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연결통로로 연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거점공간은 마을이치향하는 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역의 부 테마적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공간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복합적 기능조성 필요
	결론	주민들의 생활상 많이 왕래하고, 마을테마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을 거점공간으로 개발하며, 각각의 개별 문화공간, 테마장소와 연결하는 연계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각 공간별로는 테마와 스토리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연계하도록 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조성방법	전문가	휴먼웨어가 우선 되어야 하며, 휴먼웨어 개발은 지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민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효과적이며, 하드웨어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와 연관되게 조성하여야 효율적임	지역의 문화적 복원을 통하여 하드웨어를 설정하여 복원 설치하며, 지역의 유래와 문화적 공간의 역사성을 스토리로 잘 조사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무엇보다 문화적 관점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민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교육, 견학, 워크샵 등을 통하여 휴먼웨어개발에 역점을 둠	휴먼웨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임. 휴먼웨어개발은 주민들의 장기와 숨씨를 도출하고, 희망사항을 조사하여 개발하도록 하며, 교육, 견학을 통하여 역량을 확대하며, 나아가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조성하도록 함.
	결론	사업지역의 테마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설정한 후 여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조성하여야 함. 휴먼웨어는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휴먼웨어는 우선 지역민들이 잘 하고, 즐겨워하는 테마를 설정하여 우선 추진하되 전체 스토리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휴먼웨어 개발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강의나 견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활동은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역량을 제고하도록 함.		
평가내용	전문가	지역주민의 사업만족도, 자긍심, 문화활동 정도 등을 조사하며, 파생되는 시너지는 3년이 지난 후에 소득, 방문객 등을 평가내용에 포함함.	신문화공간사업의 농촌경제와 연계, 소득, 매출증감율, 방문객수, 교육기회 확대, 전문가교류, 주민자치율, 사업관리, 주민참여비율, 주민 출자비율, 조직자립도, 하드웨어 독특성, 용도에 맞는 사업설정, 관리상태,	주민만족도, 6개 마을 비교지표는 주변마을과 비교, 사전사후비교, 자긍심지수, 네트워크 마을의 경관, 아이덴티티 비교지표, 주변마을과 비교, 전문가가 만드는 평가시트가 나와야 할 것임.

		이용률, 가동률 등	
결론	평가내용으로 전문가 공통사항은 주민만족도 사전사후평가, 주민참여율, 자긍심지수, 지역애정도, 주민출자액, 조직의 자립도, 주변마을과 비교평가, 방문객수 등을 포함하여 추진		

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유형별 추진전략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례분석,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문화공간사업을 주민생활중심형, 문화자원보존형, 수익사업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1) 주민생활중심형 신문화공간사업 추진전략

대상지역의 특징은 주민들의 신문화공간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갖춘 마을로서 서산 여미리, 서귀포 가시리 등이며, 주민요구사항으로는 주민문화생활 지원 40.2%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은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이 윤택해지도록 지역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며,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부모임 통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하게 하고, 문화공간의 계승,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문화적자부심 고양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 영국 등이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소득과 연계하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문화공간 조성 프로세스는 주민중심 마을기초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함께 심층조사를 한 후 사업테마를 도출하고, 주민요구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사업화방법은 문화학습동아리조직, 예술적 작품 창작, 파생소득 창출의 형태로 추진되어 할 것이다.

(2) 문화자원보전형 신문화공간사업 추진전략

대상지역의 특징은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마을이며, 주민들은 마을문화보전을 희망하는 비율이 49.7%에 달하였다. 전문가의견으로는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이 많지만 주민 역량이 부족한 마을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본격적인 주민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프로세스는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무형문화재 양성 후 사라져가는 문화를 복원하고, 현대와 접목한 문화창작 활동하게 하며, 문화상품을 창조하여 경제적인 것과 연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화를 위해서 문화자원 전문가 조사 후 무형문화중심의 복원을 하고, 문화재 관련 이벤트 개발하는 것이다.

(3) 수익사업형 신문화공간사업 추진전략

대상지역의 특징은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고, 가구당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서 완주 비비힐, 횡성 금광주막촌 등이 해당된다. 주민요구는 수익사업 희망 10.1%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의견은 문화적 자원이 빈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무형문화를 복원하

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문화활동보다 소득창출을 하도록 하며, 전통음식, 체험 등을 통하여 수입구조를 창출하며, 에이징푸드를 소득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프로세스는 마을주민 소득이 낮고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무형문화자원을 발굴, 현대적 재현으로 소득창출하며,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본래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화방법은 문화활동 체험학습개발, 캐릭터 및 문화상품개발, 소득사업개발 등이다.

<표3>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 도출

- 잊혀져 가는 농어촌문화 복원으로 주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고취
- 개별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 네트워크 기반으로 교류문화 생활화

유 형	주민생활중심형	문화자원보전형	수익사업형
대 상	-주민들의 신문화공간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역량을 갖춘 마을 -서산 여미리 -서귀포 가시리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고, 가구당 소득이 낮은지역 -완주 비비힐 -횡성 금광주막촌
주민 요구	주민문화생활 지원 40.2%	마을문화자원보전 희망 49.7%	수익사업 희망 10.1%
전문가 의견	-문화공간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즐겁게 이용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환경이 윤택해지도록 지역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테마 설정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부 모임 통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 -문화공간의 계승,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문화적자부심 고양 -(일본,영국)지역주민 사업 참여 -시너지효과로 소득연계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이 많지만 주민 역량이 부족한 마을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본격적인 주민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참여	-문화적 자원이 빈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특히 무형문화를 복원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문화활동보다 소득창출 -전통음식, 체험 등을 통하여 수입구조 창출 -에이징푸드 소득화
프로세스	-주민중심 마을기초조사 -전문가와 함께 심층조사 -테마도출 -주민요구사업개발/운영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무형문화재 양성 -사라져가는 문화 복원 -현대와 접목한 문화창작 활동 -문화상품을 창조하여 경제적인 것과 연결	-마을주민 소득이 낮고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 부족 지역 -지역 무형문화자원을 발굴, 현대적 재현으로 소득창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본래의 성과를 달성
사업화	-문화학습동아리조직 -예술적 작품 창작 -파생소득 창출	-문화자원 전문가조사 -무형문화중심 복원 -문화재 관련 이벤트개발	-문화활동 체험학습개발 -캐릭터 및 문화상품개발 -소득사업 개발

2) 신문화공간사업 성과평가지표개발

신문화공간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위하여 전문가 인터뷰자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사례분석, 주민조사 등을 토대로 1차 사업성과 평가지표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2차, 3차의 수정을 통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를 조사한 후 AHP분석을 통하여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하고 지표별 점수부여 방안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는 2영역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과정’ 영역에서는 평가항목이 사업비 집행정도, 자부담사업비 투입액, 토지/시설물 등기, 사업법인의 정관/협약서, 마을주민 조직수, 워크숍지자체의 의지, 전문가 컨설팅 참여형태 등이며, ‘사업추진성과’ 영역에서는 기본계획대비 달성도, 주민요구 계획 반영, 사업 파생소득 가능성, 사업운영 고용인력, 홍보실적, 문화활동 개최횟수, 지속적 유지/관리, 사업자율운영 능력 확보, 지역주민 만족도 등이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성과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결과」 영역보다 「사업추진과정」 영역의 중요도가 높았다. 이것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실적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이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신문화공간사업 사업성과 평가지표 중에 지역주민의 만족도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토지시설물의 등기, 사업법인의 정관/협약서, 마을주민의 조직수 등의 순이었다. 농촌신문화공간사업 사업성과평가지표가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점수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4>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성과 평가지표

대분류	집단내 가중치	중분류	집단내 가중치	세부평가지표	집단내 가중치	전체 가중치	환산점 (100점)
사업 추진 과정	0.59	사업비	0.09	사업비 집행정도	0.43	0.02	2
				자부담사업비 투입액	0.57	0.03	3
		추진주체	0.54	토지/시설물의 등기	0.51	0.16	16
				사업법인의 정관, 협약서	0.49	0.16	16
		거버넌스 체계	0.37	마을주민 조직수	0.48	0.10	10
				워크숍 지자체의 의지	0.21	0.05	5
				전문가 컨설팅 참여형태	0.31	0.07	7
사업 추진 성과	0.41	계획 달성도	0.07	기본계획 대비 달성도	0.22	0.01	1
				주민요구 계획 반영	0.78	0.02	2
		성과	0.14	사업 파생소득 가능성	0.59	0.03	3
				사업운영 고용인력	0.28	0.02	2
				홍보실적	0.13	0.01	1
		지속 가능성	0.38	문화활동 개최 횟수	0.59	0.09	9
				지속적 유지/관리	0.28	0.04	4
				사업자율운영능력확보	0.13	0.02	2
		주민 만족도	0.41	지역주민 사업만족도	1.0	0.17	17
계						1	100

<표5>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성과 평가지표(점수부여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부평가지표		점수부여(예시)
		지표명	점수	
사업 추진	사업비	사업비 집행정도	2	○ 사업비 적기 확보 및 집행 정도 평가 -2점 : 정상집행, 시군비 전반기 100%확보 -1점 : 80%집행, 시군비 후반기 100%확보

과정		자부담사업비 투입액	3	○ 지역주민 자기자본및 마을공동기금 투입 -5점 : 지역주민 개인돈, 마을기금투입 -3점 : 마을공동기금투입 -1점 : 모두 정부, 지자체 예산만 확보
	추진주체	토지/시설물 등기	16	○ 사업 토지 및 시설의 등기완료(건물시설 완료확인수단) -16점점: 등기 완료, -10: 미등기 1건, -4점: 미등기 2건 이상
		사업 법인형태	16	○ 사업법인 설립정관, 협약서 확정정도 -16점: 추진법인설립 정관, 협약서 -10점: 법인 미등기 법인화(법인회원) -4점: 마을사업추진위원회 형태
	거버넌스 체계	마을주민조직수	10	○ 사업후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민조직수 - 10점 : 10개이상, -8점: 6-9개, -6점: 3-5개, - 2점: 2개이하
		워크숍 지자체의 의지	5	○ 주민워크숍 등 지자체의 사업성공 의지 -2점: 추가사업 2건이상, 지자체주관교육 10회이상 -1점: 추가사업 1건이상, 지자체주관 교육 5-9회
		전문가 컨설팅 참여형태	7	○ 사업추진과정에 전문가 상주여부, 방문회수 측정 -7점: 전문가 상주 -4점: 비상주, 전문가 방문컨설팅 회수 10회이상 -2점: 비상주, 전문가 방문컨설팅 회수 9회이하
사업추진성과	계획달성도	기본계획 대비 달성도	1	○ 사업완료후 기본계획의 달성도 -1점: 80%달성, 완공시설에 지역전통문화 반영
		주민요구 계획 반영	2	○ 계획단계 주민회의, 주민수요조사 등 주민참여노력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2점: 주민회의 20회이상, 주민요구 90%반영 -1점: 주민회의 10-20회, 주민요구 60%반영
	성과	사업 파생소득 가능성	3	○ 주민문화활동, 동아리 등을 통해 파생기대 소득액 -3점: 기대소득 연간 600만원이상, -2점: 300-599만 -1점: 300만이하
		사업운영 고용인력	1	○ 신문화공간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턴트, 예술가, 지역주민 등 직간접적 급여를 받고 고용되는 인원수 - 1점 : 연인원 1명이상(상근고용 기준)
		홍보실적	2	○ 사업도입후 총 홍보건수(방송, 신문, 잡지, 기고 등) -2점: 10건이상 -1점 : 1-9건
	지속가능성	문화활동 개최 횟수	9	○ 사업으로 개발된 문화활동,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의 개최건수 -개최건수당 0.5점부여
		지속적 유지/관리	4	○ 사업종료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재정확보액 등 -4점: 유지예산100%, 운영조직, 규약, 책임자 선정(법인화) -3점: 유지예산 80%, 운영조직, 규약, 책임자 선정(비법인화) -2점: 유지예산 60%, 주민자치회운영 -1점: 유지예산 59%이하, 유지관리조직없음
		사업 자율 운영 능력 확보	2	○ 주민중심 문화공간 계획수립, 운영역량 정도를 전문가평가 실시 -2점: 문화활동계획 및 운영가능(공연, 축제등) -1점: 외부전문가 부분지원, 자율운영 50%
	주민만족도	지역주민 사업만족도	17	○ 주민 문화활동만족도, 자긍심, 전체만족도 조사 -17점: 평균 80%이상, - 9점 : 75-79%, - 7점: 70-74, -5점: 65-69, -3점: 60-64% -1점: 59%이하

3) 신문화공간사업 지침(매뉴얼) 작성

신문화공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지침(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과제 수행중에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활용하였다.

가) 기존 신문화공간사업 지침 분석

(1) 사업개요

사업목적은 농어촌 지역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다.

사업추진방향은 ① 정미소, 방앗간 등의 향토문화시설을 지역 주민의 수요가 있는 도서관, 전시관 등의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복원(유형의 문화공간조성) ② 구전과 문헌 등으로 전해지는 지역특유의 풍속, 예술, 생활양식 등의 무형의 인문자원을 체계화·구체화하여 유형의 문화자원화 ③ 개별적으로 정비된 유·무형의 문화공간 및 문화자산을 기존의 체험·교류·문화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④ 하드웨어 정비단계부터 워크숍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활용, 문화행사 등 소프트&휴먼웨어 사업을 병행 추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근거법령은 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산어촌의 문화예술진흥),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③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등이다.

'09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은 3,1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1,550)정도이며, 6개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3년간 시군당 30억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역할을 보면 사업주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이며, 역할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예비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며,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지원을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검토하며, 농식품부에 사업시행을 건의하고 예산지원 요청을 한다. 시장·군수는 ① 예비계획서 작성, 기본설계, 시행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와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관리, ② 사업추진조직체 또는 지역내 협력체계와 협의, 사업대상지역내 자원 및 주민의 문화활동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을 건의, ③ 사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조직체 또는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주민은 사업추진조직체 또는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시장·군수 등과 협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구조물,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게 된다.

사업대상지의 요건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사업여건에 따르는 사업대상지의 요건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는 사업대상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촌”과 “어촌”으로 ①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읍·면의 전지역),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시의 동 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1의 지역(읍·면의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여건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요건은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이 있거나 자원조사가 진행된 곳이며, 주민역량이 갖추어져 도시민 등과의 문화교류활동이 용이한 곳으로 하고 있다.

신문화공간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사업대상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

사업대상지 선정절차는 ① 예비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군 → 시·도), ② 예비계획서 심사 요청(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③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농림수산식품부), ④ 사업대상지역 확정 및 통보(농림수산식품부) 순이다.

<표 6>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

절차	세부내용
예비계획서 작성 제출 (시·군 → 시·도)	○ '09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예비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계획서를 작성 － 예비계획서 작성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09. 1. 20까지)
예비계획서 심사 요청 (시·군 → 시·도 → 농림수 산식품부)	○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수 산식품부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건의('09. 1. 30까지) － 효율적인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이 우수한 상위 2개 이내 의 사업대상지역을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농림수산 식품부)	○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에 서 추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09. 2월까지) ○ “심사위원회”는 － 농림부가 마련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의결·확정 ※ 평가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사업추진의 효율성, 사업효과, 운영관리계획 등 ※ 지방의회의 사업비 지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조 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평가시 가점 부여 － 의결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역별로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09사업대상지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추

	천
사업대상지역 확정 및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통보('09. 2월까지) - 각 시·도에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09예산반영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4)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공사준공, 자금의 배정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가) 기본계획수립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조직체 또는 지역내 협력체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안)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지역의 현황(기존의 체험·교통·문화시설 현황도 포함)
- 사업대상지역 주민의 문화수요
- 사업대상지역의 신문화공간 개념
- 사업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및 경관정비계획
 - 지역자원(정미소, 방앗간 등) 활용계획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신문화공간의 세부공간인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조성계획 포함)
- 지역주민간, 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소프트&휴먼웨어 추진계획
 -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의 활용과 연계된 소프트&휴먼웨어 추진계획
- 시설운영 등 사후운영관리계획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안) 작성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시행계획수립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계획은 생략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승인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때에는 변경 승인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계획에 맞추어 (3년) 계획)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가능하다.

(다) 사업시행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한 내용 및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은 당해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되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원 등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준공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되, 예비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 등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군수는 공사 완료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관리하게 된다. 토지 등과 같은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은 시장·군수와 사업추진조직체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사업추진조직체로 등기 가능하다.

마을 및 사업추진조직체로 등기할 경우 등기관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매각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

(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바) 자금의 배정

사업대상지역별 총사업비는 지원규모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자부담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여 추진토록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다.

주민교육 등 시행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소프트&휴먼웨어 분야의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자금을 배정하고 사업시행 가능

소프트·휴먼웨어 분야 등 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또는 위탁시행자)와 사업추진조직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5)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조성한 구조물,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급적 시장·군수가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되, 불가한 경우 등에는 사업추진조직체 또는 지역내 협력체계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절 목표대비 대외달성도

당초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정책건의는 2건 목표에서 4건으로 200% 달성했으나 영농활용건수는 1개 목표였으나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시책건의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2절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논문게재>

2010

조록환·노용호, 개인의 가치와 태도가 농촌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관광연구 17(3): 21-40.

<정책제안>

2010

농촌 신문화공간 사업성과 평가지표 제안

<간행물>

2009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방안 및 사례(책자)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농식품부에 제공하여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용방안으로 신문화공간사업의 타당성, 방향성차원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관련 우수사례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것이며, 6개 사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조사결과는 사업개발 및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고, 신문화공간추진전략과 사업성과 평가지표개발은 정책추진을 하는 농식품부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6 장 참고문헌

- 농림부(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개발연구소.
- 농식품부(2009). 농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지침, 농식품부 자료.
- 농촌진흥청(2005). 농촌의 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어메니티 보전 및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수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박명희(1999). 관광자원해설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석(2002). 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의 중요도 평가 및 순위관계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6): 21-35.
- 서귀포시(2009).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서귀포시.
- 서산시(2009). 서산시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서산시.
- 안영철(2002). 전통예절과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구. 문화관광연구 4(4): 103-104.
- 옥천군(2009) 옥천군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옥천군.
- 완주군(2009).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완주군.
- 원용화·이미혜(2002). 전통문화거리의 체험 관광상품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논총 8
- 의성군(2009). 의성군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의성군.
- 이상문(2004). 농촌어메니티의 산업자원화와 서천군의 추진방향. 21세기 농촌 신성장 동력원 발굴 대토론회 자료집.
- 장은숙·전영미·박윤희(2002). 농촌마을 정비특성별 어메니티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30(3): 35-45.
- 조록환(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에서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최수명(2001). 어메니티 지향시대의 농촌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농업기반공사.
- 최영창·박은식 외(2007). 농촌리더십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2): 329-349.
- 횡성군(2009). 횡성군 신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횡성군.

주요 결과 요약서

□ 과제명 :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신문화공간조성 전략개발 연구

▶ 연구목적 :

-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 신문화공간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전략 개발

▶ 주요연구내용 :

- 1세부과제명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 신문화공간사업의 국내외 성공 사례 26개 지역을 정부주도와 민간 주도, 시장지향성과 주민공동체지향으로 구분하였으며, 신문화공간 조성 유사사업 성공사례 특성을 개별공간, 거점공간, 연계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Agency)가 설립되어 마을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수행(스페인, 독일, 프랑스 사례, 서귀포 가시리 개발사례)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 이후에도 주민주도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비즈니스 모델)(영국, 스페인, 스위스).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모금된 자체 사업비에 의하여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었음(영국).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일본 시바손, 영국 콘월 등)하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이 충분히 장기적이었음(일본 10년간 지속, 영국 8년).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하며(일본), 마을고유의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참여하고 있었음(원주모두골, 부산맞추픽마을, 통영동피랑마을). 마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주민의 참여(서울 성미산, 산청민들레, 양평구둔영화마을), 귀농, 귀촌인들의 중심적인 역할(산청민들레, 음성황토명상마을, 장수하늘소마을)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었음. 지역이 전통문화보존지구로 설정되면 비록 오래 되지 않은 개인주택이라도 전통건물보존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일본, 스위스, 스페인),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있었음(일본, 영국).

○ 2세부과제명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마을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1차 56.8%에서 2차 65.8%로 증가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견 수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차 조사 71.7%에서 2차 조사 93.2%로 크게 증가함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거주기간, 연간 가구소득, 자가소유면적, 벼농사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종사기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사회문화요인(+), 긍정적환경요인(+), 부정적환경/경제요인(-) 순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주민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사업효과 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효과 인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갈등원인은 주민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불충분하며, 의사전달에 왜곡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사업목표가 다르며, 주민들 간의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충돌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3세부과제명 :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 개발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시범사업추진 단계에서 관련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음
-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효과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문화공간사업 성과지표를(2영역 16항목) 개발하였음